

성도의 벗 5

1989

대한성공회예수그리스도교회



원로 명예 부록 『성도의 벗』 어린이판

성도의 빛

1989년 5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교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 제275권, 제30권, 제5호
등 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89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정 기 만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905KO
PRINTED IN KOREA 5/89

© 1989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의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관장단 메시지 :

2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자들아.....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7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시 에릭 오토

질의 응답 :

10 가증한 신조.....호이트 더블류 브루스터 이세

가족 지침서 :

13 자녀에게 자유의지와 선택하는 것을 가르침

17 하와이인의 사랑의 상표.....조안 줄리

23 어느 개종자의 초상 마르다 포스톤

25 결혼 생활에 믿음이 있습니까?.....크리스티 에이치 프렌슨

31 위기의 때.....에이 라 바르 소나크

방문 교육 메시지 :

35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7 나는 성직자가 될 것이다.....로빈 케이 백스

청소년란

40 모형.....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42 리오에서의 토요일 특별 활동.....테리 젠크스

46 빛의 원.....마릴린 브라운

어린이란

2 물리시의 흰 셔츠.....파올라 제이 헌트

5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 : 교리와 성약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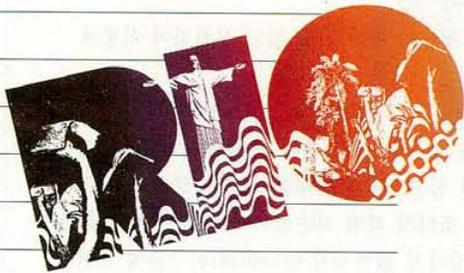
6 함께 나누는 시간 : 의로운 지도자가 됨.....팻 그레함

8 심심풀이 : 참말 같지 않은 말.....페기 기젤

교회 및 지역 소식

표지: "침례받으시는 예수님" 해리 앤더슨 작품.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구세주께서는 침례 요한에 의해 침례 받으셨으며, 침례 요한은 1829년 5월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이러한 구원의 의식을 베풀 수 있는 신권의 권능을 회복시켰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자들아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나는 어느 날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로 알려진 지역에 있는 사스케하나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나무 숲을 지나 물가로 내려왔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1829년 5월 15일에 일어난 일을 생각했으며 그 일의 기이하고 놀라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당시 23세였던 젊은 요셉 스미스를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엠마 헤일과 결혼했으며 그들은 그녀의 부모가 살고 있는 하모니로 돌아갔습니다. 학교 교사였던 올리버 카우드리는 요셉을 방문하여 물문경을 번역하는데 요셉이 부르는 대로 받아쓰는 서기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은 5월이 되면 아름답습니다. 봄의 잎사귀들이 나무에 돌아 납니다. 아직 꽃이 지지 않은 나무도 볼 수 있습니다. 강물은 눈이 녹아내리는 대로 흘렀습니다.

고대 기록을 번역하던 두 젊은이들은 죄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언급하는 부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아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침례를 베풀 권능을 갖고 있으며 행하는 방법은 어떤지에 관해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채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했을 것입니다.

“주님께 여쭙어 봅시다.”

그들은 집과 마당과 주변에 있는 들판을 떠나 주님께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올리비에 따르면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 구세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분명 놀라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그들은 빛에

싸여 내려오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신약 성서에서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그 요한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맬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손을 두 청년의 머리 위에 얹고 성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 신권은 또다시 레위 자손들이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교성 13편)

“그리고 그는 아론 신권은 성신의 은사를 주기 위하여 안수할 권능은 없으나” 이 권능은 후에 부여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에게 먼저 올리버를 침례하고 그런 다음 올리버가 요셉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물가로 걸어내려 갔습니다. 거의 그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 진지한 두 젊은이들은 부활한 자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요셉이 먼저 올리버를 강물에 침수함으로써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올리버는 같은 방법으로 요셉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요셉은 그의 손을 올리버의 머리에 얹고 조금 전 요한이 했듯이 그를 아론 신권에 성임하였으며 그 뒤에 올리버도 요셉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그 두번째 성임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이미 요한에게서 권능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권 성임이 침례를 받은 후에 있어야 하며 신권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이 정해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한이 이 신권을 부여하면서 한 말은 많지 않았습니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권을 부여해 온 우리들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많은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필요한 모든 말을 다 했으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방법도 정해 주었습니다.

그가 요셉과 올리버에게 준 권능은 팔레스타인에서 침례 요한으로 알려졌던 그 사람, 요한에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기 위해 찾아 가셨을 때 지니고 있던 것과 같은 권능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누가복음 7:28)

요한이 그의 손을 요셉과 올리버의 머리에 얹었다는 것은 나에게서 큰 의미를 줍니다. 복음이 회복된 역사에서 이러한 절차를 따랐다고 하는 기록은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부활한 분이 실제로 그의 손을 이 은사를 받은 두 젊은이의 머리 위에 얹었다는 것을 나는 크게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성스러운 권능을 전하는 데는 실제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적절한 말로 표현한다면, 권능은 그것을 가진 자로부터 받는 자에게, 가진 자의 손을 통해 받는 자의 머리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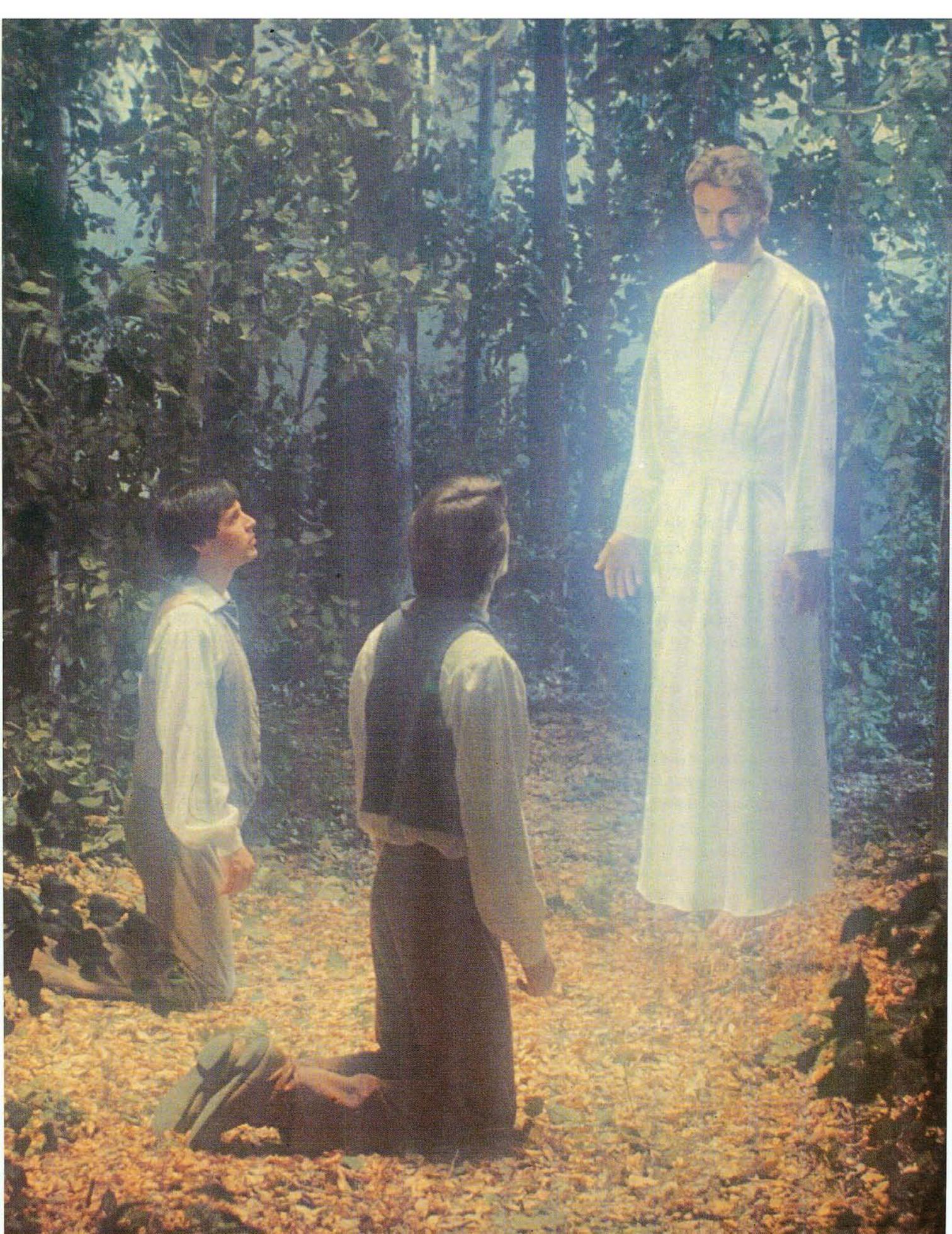
요한은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자들아”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청년들아, 또는 청소년들아” 혹은 그와 비슷한 어떤 말을 하지 않고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자들아”하고 말한 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자신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그 중요한 순간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다른 사람은 종이 아니라 신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그 권능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으며, 신체적으로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살갗이 흰 수도 있고 검을 수도 있으며, 키가 크거나

작을 수도 있고, 교육을 많이 받거나 요셉처럼 비교적 교육을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성한 권능의 관점에서 볼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자들아”라고 한 요한의 서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는 세상의 재물도 갖지 못하고 비교적 정규 교육도 별로 받지 못했으며 외면상 별로 두드러진 것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행사하기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다음에 “메시아의 이름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최초의 의식에서 그는 우리에게 따라야 할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신권 의식을 집행할 때 일반적으로 “메시아의 이름으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뜻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행하는 모든 신권 사업에서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신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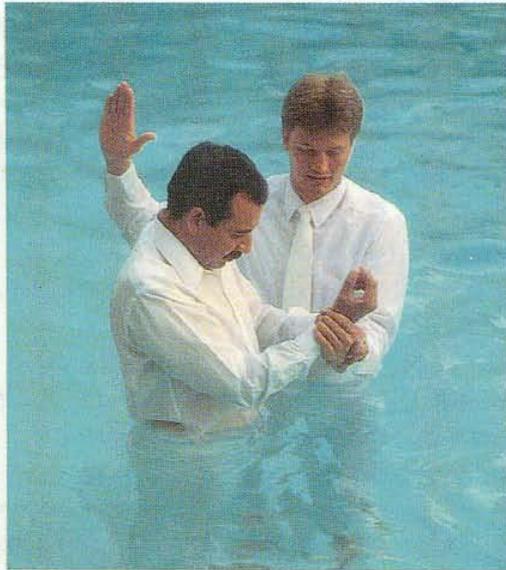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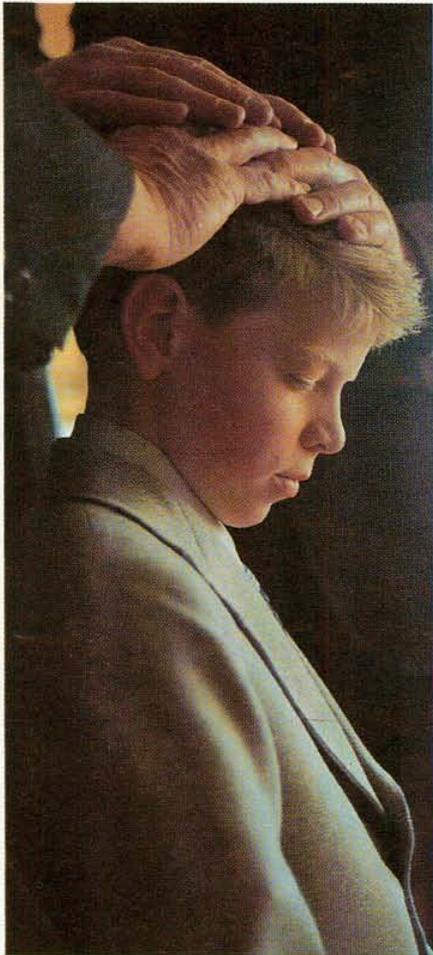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신성한 것입니다. 신성한 방법이 아니고는 누구도 그 이름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가장 중대한 죄가 됩니다. 그것은 이 교회에 신성하게 주어진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이름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세상 모든 사람과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필멸의 어머니와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에게 있는 신성한 능력으로 그는 죽음을 극복하고 무덤에서 일어났으며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 왔습니다.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어서는 결코



요 한은 그 다음에
“메시아의 이름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최초의 의식에서 그는 우리에게
따라야 할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행하는 모든 신권 사업에서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안됩니다. 항상 그 이름을 거룩하게 간직하며 경건하게 사용하십시오.

요한은 또한 아론 신권을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이 위대한 권세와 권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신권이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열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사의 성역”을 포함하여 어떤 구체적이고 훌륭한 축복을 받게 해 주는 권능을 말합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모든 소년은 그들이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천사의 성역을 베풀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와 안내와 위안과 힘을 위해 신성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요한이 천사의 성역을 언급할 때 의미없는 말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그 신권을 받고자 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한한 가치를 지닌 능력의 근원을 부여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그는 회개의 복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우리에게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영원한 복음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론 신권을 소유한 모든 소년들이 선교사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회개를 가르치는 데 힘껏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켜 과거의 죄를 벗어 버리며 장차 훌륭한 생활을 하도록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요셉과 올리버에게 이 신권으로 죄사유함을 받기 위한 침수료써의 침례를 베풀기 위한 권능을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 분명하게 밝히신 것과 같이, 침례는 죽음과 장사지냄,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남을 상징합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즉 죄가 모두 씻기우고 침례의 물에서 나올 때 깨끗하고 온전하여 앞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살겠다는 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주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신권에 성임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합당한 권능으로 이 의식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매년 5월 15일에 아론 신권의 회복을 기념하는 것이 이상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념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 거두어 간 성스러운 권능이 지상에 온 것을 나타내며, 이 지상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다시 왔음을 나타냅니다.

그 권세를 알고 본 한 사람으로서, 영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아멘.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아론 신권은 부활한 침례 요한에 의해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2. 요한이 요셉과 올리버에게 준 신권의 권능은 오래 전 그가 구세주를 침례할 때 지녔던 것과 같은 권능입니다.
3. 아론 신권의 회복과 더불어 옛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생활을 하겠다는 상징으로서 위대한 침례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토론시 유의 사항

1. 이 경륜의 시대에 신권의 권능이 회복된 것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말한다. 가족에게 신권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이야기를 한 후에 이 토론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는가?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의 메시지가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시 에릭 오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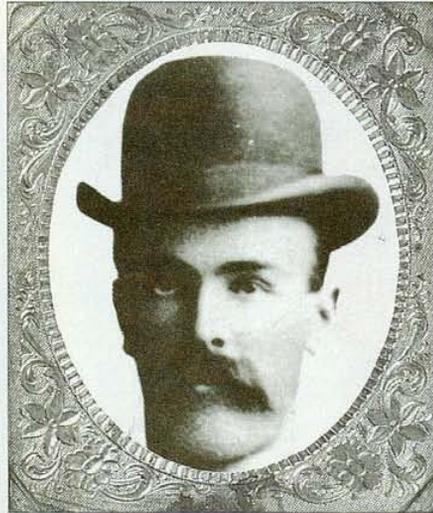
선교 사업 또는 인생의 참된
가치는 주님의 시간 계획표
안에서만 측정될 수 있다.

나의 조부의 형제인 조셉 엘마
오토는 1895년 남유타의 조그만
마을 트로픽에서 최초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남유타의 황무지를
농장과 목장으로 개간하는 일을 도운
불굴의 개척자, 데이비드 벤튼 오토와
한나 노밍턴의 세째 아들이었다.

스물 네 살의 조셉은 엘리자벳 졸리와
세인트 조지 성전에서 결혼을 한 지 불과
몇 주도 안되어 독일로 가라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다. 당시 많은 사람이
그랬듯이 조셉은 그가 알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뒤에 남겨 두고 유럽으로의 긴
여행을 떠났다.

불행히도 오토의 최초요 마지막이었던
선교사 동반자는 비극을 목격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배에서 내리다가
조셉은 미끄러져 바다의 찬물에 빠졌다.
그는 바다의 찬물과 얼어붙듯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병에 걸렸다. 그의 상태가
악화되어 선교 지역에 도착한 지 한달
만에 조셉은 죽고 말았다. 그는 현재
동독에 있는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에
묻혔다. 그의 유품 중 지역 역원들이
집에 보낸 것은 금시계뿐으로서 그것은
후에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선교 사업을 하러 갈 때 가지고 갔었다.

오토 장로의 사망 소식은 가족을
침통케 했다. 조셉은 죽었으며 그의
생애는 끝나고 그의 시신은 먼 미국 땅에
묻혔다. 몇 주 전만 해도 새신부로



즐겁게 춤을 추던 엘리자벳은 슬픔에
젖은 젊은 미망인이 되었다. 조셉의
아버지는 고대의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짐승들에 잡혀 죽었다고 생각하고
통곡했던 것처럼 통곡했다.

결국 세월이 흐르고 그들의 신앙으로
그 아픔은 잘 견디어 냈으나, 슬픈
운명의 선교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왔다.

그동안 오토 장로의 기억은 독일
성도들 사이에 훌륭하게 전해져 왔다.
조셉의 사망 직후 유럽 선교부장과
교회의 몇몇 장로들이 간단한 장례식을
거행한 뒤 무덤을 헌납했다. 지역에서
기부한 돈으로 묘비도 세워졌다. 흰
대리석으로 된 1.6미터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

조셉 에이 오토를 그리며

1870년 12월 12일
유타주 버진사에서 출생
1896년 1월 10일
드레스덴에서 사망

믿음의 성도들이
그에게 바칩

독일의 성도들은 큰 묘비 사진을
찍어 오토 가족에게 보냈다. 그 사진은
여러 해 동안 조셉 부모의 집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었으며 그후에는



누이의 집으로 옮겨 갔다. 그가 죽은 지 몇 년 뒤에 교회에서는 그의 유해를 고향에 묻도록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려깊게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가족은 선교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비극적으로 마친 독일 땅에 그의 육신을 남겨 두기로 했다.

빛나는 빛

그러나 이상하게도 조셉 오토의 선교 사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1908년 마리아 스트라우흐라는 이름의 여인이 친척의 무덤을 정규 방문하기 위해 드레스덴 묘지를 찾아왔다.

하루는 무덤을 찾아왔던 마리아가 어느 묘비에서 빛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호기심을 갖고 알아보기로 했다. 묘비에 다가간 여인은 그것이 조셉 오토라는 선교사의 묘임을 알았다.

마리아는 그녀가 본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찌서 그녀의 주의가 그의 묘비에 쏠렸던 것일까? 그녀에게 온 응답은 묘비에 새겨진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보아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독일에서 한 세기가 지나도록 회원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주의깊게 찾아본 결과 마리아 스트라우흐는 지역에 있는 지부를 찾게 되었다. 그녀는 복음의 메시지를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침례도 받았다. 일년 후에 남편 헤르만은 침례를 받고 결국 열 세 명의 자녀 중 대부분이 침례를 받았다.

그 이후로 마리아의 자손들은 독일에서 교회의 성장에 많은 공헌을 했다. 예를

들면, 한 아들인 헤르만 칼 스트라우흐는 1920년대에 고국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복음의 빛은 두 번의 전쟁과 독일 국가의 분단속에서도 스트라우흐 가족내에서 환하게 비추어졌다.

예기치 않은 방문자들

1988년 초 어느 오후,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한 부부 선교사가 나를 찾아왔다. 예기치 않은 일이었다. 그들의 명찰은 그들이 로만과 헬라 스미스임을 말해 주었다.

스미스 자매는 문에 있는 나의 이름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나에게 오래 전에 독일로 선교 사업을 떠나 그곳에서 죽은 오토라는 이름의 선교사를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큰 할아버지 조셉을 생각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의 이름을 말해 주고 독일에서 그가 죽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스미스 자매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마리아 스트라우흐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녀가 공동 묘지를 방문할 일, 조셉의 묘비에서 빛나던 빛,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이 개종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헬라 스미스는 자신이 마리아 스트라우흐의 손녀라고 했다. 그녀의 모친, 게멜라 스트라우흐 울프즈는 헤르만과 마리아 스트라우흐의 열 세 번째 자녀였다고 했다.

드레스덴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헬라는 1955년 동독을 떠나 미망인이 된 어머니 그리고 오빠인 헨리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다. 이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서 독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날 서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스미스 자매와 나는 우리에게 찾아온 감미로운 느낌에 젖어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오트 형제님, 큰 할아버지이신 조셉은 결국 훌륭한 선교사가 되신 셈이군요.”

마리아 스트라우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게 해 주었다. 조셉 오토의 선교 사업으로부터 생겨난 훌륭한 일을 알게 된 것은 장기간의 만성 질병이 치유된 것과 같이 나의 가족에게 위안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나머지 이야기는 위안 뿐만이 아니라 통찰력까지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선교 사업과 인생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선교 사업의 성공 여부는 선교 기간 동안에 침례를 배운 개종자 수와 그들이 이룩한 일의 성과로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 나는 많은 일들이 유한한 시간의 틀에 근거를 두고 판단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세상에는 늘 훨씬 후에 가서 일의 결실을 보게 되는 아비아다이나 조셉 오토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때로 현재를 지나 훨씬 후에까지 이른다. 주님의 날은 우리의 날보다 길며 선교 사업 또는 인생의 참된 가치는 주님의 시간 계획표 안에서만 측정될 수 있다. *

유타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조사 및 평가 책임자로 있는 오토 형제는 오랜 유타 이스트 스테이크 오쳐드 제3와드의 감독이다.

질의 응답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임

첫번째 시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가증한 신조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호이트 더블류 브루스터 이세, 벨기세덕 신권과 책임자

예 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의 첫번째 시헌에 관한 기록을 글로 쓰거나 언급할 기회가 적어도 네 번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835년에 기록된 간단한 기사에서만 당시 사람들 사이에 가르쳐진 거짓 신조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밀톤 브이 백맨 이세,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헌*,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0년 참조)

1832년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에게 받아 쓰게 한 기록에서, 예언자 요셉은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세상이 지금 현재 죄 가운데 놓여 있으며 아무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언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심히 멀도다.” (백맨, *첫번째 시헌*, 157페이지)

현재 값진 진주에 수록되어 있는 기록은 1838년에 쓰여졌습니다. 이 기록에서 어린 요셉은 하나님께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교파가 다 그러며 그들의 신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며 그들의 교사는 부패하였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심히 멀도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요셉 스미스서 2 : 18~19)

웬트워즈 서한으로 알려진 1842년 기록에서 예언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영광스러운 두 분은 내게 모든 종파가 그릇된 교리를 믿고 있으며 그중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와 왕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백맨, *첫번째 시헌*, 169페이지)

1820년 봄 어느 날 아침 거룩한 숲에서 예언자가 경험했던 일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당시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교리를 기뻐하지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큰 이유는 구원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가르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대에 사도 바울은 위험한 때가 올 것이며 그때에 인위적이고 배도적인 일이 만연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일을 옹호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 서라”고

권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 : 5 또한 요셉 스미스서 2 : 19 참조)

어떠한 신조, 교리, 철학, 계율, 행위, 의식 또는 가르침이라도 그것이 고의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복음으로부터 사람을 이끌어 낸다면 그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리나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으로부터 비록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경건이 부족한 것이며 우리는 이같은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경건의 능력은 신권의 의식에서 나타난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 의식과 신권의 권위 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니라.” (교성 84 : 20~21)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에 필요한 복음의 의식이 모양은 비슷하지만 성스러운 신권의 권능이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더욱이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열의가 아무리 진지하다하더라도, 그 의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능없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업, 즉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세서 1:39)을 지체하게 됩니다. 것처럼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하나님의 일을 지체시키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첫번째 시현에서 언급된 가증한 것에 관해 존 에이 윌소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셉에게 모든 교회가 그러며 그들의 신조는 가증하며 그 교사들은 모두 부패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분히 공격적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진리를 추구하려 했다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목사들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부패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천명했으므로 그들은 그릇된 교사였습니다. 그릇 인도받은 사람과 고의로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은 잘못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진리만이 오직 거룩한 것이며, 그것이 침해를 입거나 변경되면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부패하고 가증하게 됩니다.”(“요셉 스미스—첫번째 시현의 중요성”, 요셉 스미스를 위한 연례 추모식 연설 1권, 로건, 유타주: 신학 연구원, 1966년, 28페이지)

경전은 우리에게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디도서 1:14)말라고 권고합니다.

말일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그릇된 신조나 믿음이 가증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감정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데 조금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일 뿐입니다.(에베소서 4:5)

우리는 다른 교회의 교사나 성직자의 진지하고 헌신적인 노력이 세상에서 많은 훌륭한 일들을 성취했음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시드니 리그돈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알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사로 봉사했습니다. 그가 개종한 뒤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시드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와 네 일을 보아 왔고 네 기도를 들어 왔으며 더욱 큰 일을 시키려고 너를 준비시켜 왔느니라.”(교성 35:3)

시드니 리그돈은 이전의 성직에서 훌륭하게 봉사한 것이 분명하지만 회복된 복음과 신권의 능력을 받아 들인 뒤 그는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며 복음의 구원 의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의 많은 성직자들을 포함하여 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도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원리와 구원의 의식을 받지 않는다면 해의 왕국의 승영에 나아갈 수 없음을 밝혀 줍니다.(교성 76:75~78 참조)

개인적인 의로움이나 선한 의도만으로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기 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보상을 받는 일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마태복음 10:41)

사람이 명예롭고 의롭지만,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이 없는 성직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그 의로운 사람의 상을 받겠지만 구원에 이르는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특정한 의식이 필요함을 거듭해서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요한복음 3:5; 교성 132:18~19 참조)

거짓된 신조와 권능없이 행해지는 의식을 거부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에 선하고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교회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교회의 회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짓 가르침 때문에 완전히 부패해 있을지라도 그 교회내에는 회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대회 보고,

1928년 10월, 120페이지)

십이사도 평의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및 많은 다른 교회에 고상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슬픈 일이지만, 소위 말일성도들 중에도 성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의식이 없는 선한 행위는 인류를 구속하거나 승영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인기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성도의 벗, 1986년 1월호, 91페이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를 저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며 각 개인에게 구원의 충만한 능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두 명의 종의 권고를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니파이인의 예언자 엘마는 그의 아들 시블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담대하되 지나”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엘마서 38:12)

또 한편 사도 바울의 다음 말씀은 모든 말일성도의 입술과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16)

이와 같이 우리는 인간의 가르침이 주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는 반면 온 인류에게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고해야 할 신성한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일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진리를 갖고 구원의 의식을 보관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와 가증함에 대해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합당한 신권의 권능을 통해 구원의 의식을 받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회원들은 독선적이거나 회원이라는 사실에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온 땅 위에…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라고 하셨으며 “나 주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느니라. 기뻐한다 함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말함이 아니요, 교회 회원 전체를 가리켜 말함”(교성 1:30)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주님 왕국의 회원이 되었다고 해서 이후의 왕국에서 승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성약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합당한 의식은 구원에 필수적이지만 계명과 그 의식에 관련된 성약을 지키는 일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대 예언자는 일단 우리가 끈고 좁은 길에 들어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하며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킨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심을 상기시켜 줍니다.(니파이서서 31:19~20)

사람이 가증한 신조를 좇든 참된 교리를 저버리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구원의 능력이 없으며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승영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선물이 들어왔으나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율법을 감당하지 못하며 도리어 제 마음대로 행동하려 하며 즐겨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율법으로나 자비나 정의나 심판으로 성별될 수 없나니”(교성 88:33, 35)*

자녀에게 자유 의지와 선택하는 것을 가르침

우리는 모두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자유의지는 영원하며 우리가 발전하는 데 신앙이나 회개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자유 의지는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생명 다음으로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연차 대회, 1976년 4월)

자유 의지의 원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전 세계에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큰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들의 계명에 따라 생활할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셨다. 무시피는 우리가 그러한 선택의 기회를 갖는 것을 거절했다.(교성 29 : 36; 모세서 4 : 1~4; 아브라함서 3 : 22~28 참조)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자유 의지의 중요성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

자유 의지를 설명함

경전은 도덕적인 자유 의지가 존재하기 위해 네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야 함을 밝혀 준다. 즉 율법과, 상대되는 것과 지식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다.(니파이서 2장 전체가 이 네 가지 요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율법. 자유 의지가 사용되기 전에 우리가 따라야 할 율법이나 계명이 주어져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 율법에 순종하면 특정한 축복이 주어지며 불순종할 때 부정적인 결과가 이르게 된다.(교성 130 : 20~21 참조)

상대되는 것. 예언자 리하이 가 가르친 바와 같이 자유 의지는 상대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것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니파이서 2 : 11 참조) 우리가 생활해 나가면서 선택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옳고 그른 것만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선악 간에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반대쪽으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세력이 있지만 결정은 우리가 내려야 한다.

지식.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선택과 그 결과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잘 선택하는 능력은 선택에 따른 결과를 잘 알게 될 때 향상된다. (니파이이서 2:5, 26 참조)

간단한 실물 공과가 어린 자녀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 장의 종이에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여러 가지 임무들을 하나씩 적는다. 이 종이쪽지를 상자나 그릇에 달고 아이들의 눈을 가린 뒤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그런 다음 눈을 뜨고 선택하게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어떤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인가를 묻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반면, 그들이 선택해야 할 것들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는지 알 때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선택의 자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없이는 자유의지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유의지란 우리가 선택하는 데 제한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다른 장소에 태어난다든지 우리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선택할 수는 없다.

(니파이이서 2:16, 27~29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직하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한 축복은 오직 정직한 자에게만 온다. 참된 자유를 갖는 데는 먼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많아질수록 책임 또한 커지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무책임한 선택으로 자유를 잃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좋지 못한 성적을 받기로 한 학생이 있다면, 그는 특정한 대학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지혜의 말씀을 어기기로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알콜, 마약 또는 담배 중독자가 될 것이다. 사회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특정한 자유를 잃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또는 하지 않기로 선택하던 그것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 결과로부터 피할 자유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할 때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 어떤 결과든 다른 결과보다 쉽게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경전과 예언자와 개인적인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우리 마음과 뜻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마이클,
내가 왜 기도하는지
말해 줄게.”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아더 헨리 킹, *마음의 풍요로움*,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6년, 129페이지)

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의 결과를 모를 때에라도, 그 결과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

자유의지를 키움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자유의지의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모범이다. 우리가 복음에 따라 생활할 것에 선택할 때, 우리는 자녀에게 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게 된다. 그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 선택에 대한 느낌과 그로 인해 받은 축복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모범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때로 모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자녀가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써 부드럽게 해야 한다. 세 살된 마이클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오늘밤에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는 기도하라고 야단치거나 나무라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클을 안아 무릎에 올려 놓고 이렇게 말했다. “마이클 내가 왜 기도하는지 말해 줄래.”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가 원했던 축복을 감사드리고 그를 지켜 달라고 부탁할 때 좋은 느낌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해 주었다. 마이클은 곧 자기의 축복을 말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아버지의 무릎에서 뛰어내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기도하겠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느낌을 진지하게 이야기했으며 아이는 그의 아버지의 사랑,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어린이가 훌륭한 선택을 했을 때, 진지하게 칭찬해 해주면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된다. 우리가

세심한 반응을 보일 때, 자녀들은 우리가 그들의 자유의지에 대한 행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칭찬해 줄수록 더 많은 것을 지도해 주게 된다. “네 돈으로 사탕을 사먹는 대신 그러한 구두를 사는 것은 참 현명한 선택이다.” 또는 “네가 텔레비전에서 축구 경기가 있는데도 교회에서 봉사 활동에 그토록 기꺼이 참여한 것을 보니 칭찬해 주고 싶구나.”

어떠한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시키든, 긍정적인 격려와 사랑의 말이 어떤 꾸지람보다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꾸지람이 필요할 때는, 잘못 선택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고 지나치게 야단쳐서는 안된다. 잘못 선택한 결과를 놓고 거듭해서 말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잖아!” 하는 식의 말을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해를 주거나 파괴적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는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따라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일을 두려워하게 된다.

자유의지에 따르는 결과

자유의지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일찍 가르칠수록 좋다.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선택과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때로는 게임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도 어린이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한 한 가지 게임은 소위 “만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게임이다. 그것은 어떤 행동을 제안한 다음 한 명의 자녀에게 또는 모든 가족이 그 결과를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존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길로 뛰어 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매리가 더 이상 주일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질문을 한다.

...래리가 결코 지혜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래리가 친구와 함께 술을 몇 잔만 마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대로 많은 결과를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인 학습 경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설교를 하는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결과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알아 보고 그들이 그 결과를 알도록 도와 주는 중요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게임 이외에도 형식적인 공과와 말씀으로 자녀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실제로 체험할 때 자유의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잘못 선택된 결과로부터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한다면, 그들은 삶의 일부로서 그러한 보호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를 입지 않고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체험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주 동안 역사 숙제를 미루어 온 딸이 과제를 제출하는 전날 밤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도와 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와

주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딸에게 일을 미루었을 때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많은 부모에게 있어 어려운 일이지는 않지만, 자녀들이 실수한 일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럴사한 이유로 자녀를 책임으로부터 회피시킨다면, 그것은 다만 진실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혼란을 갖게 할 뿐이다. 결과에 대해 고통을 겪게 하는 일은 그들에게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이 신뢰와 존경의 분명한 메시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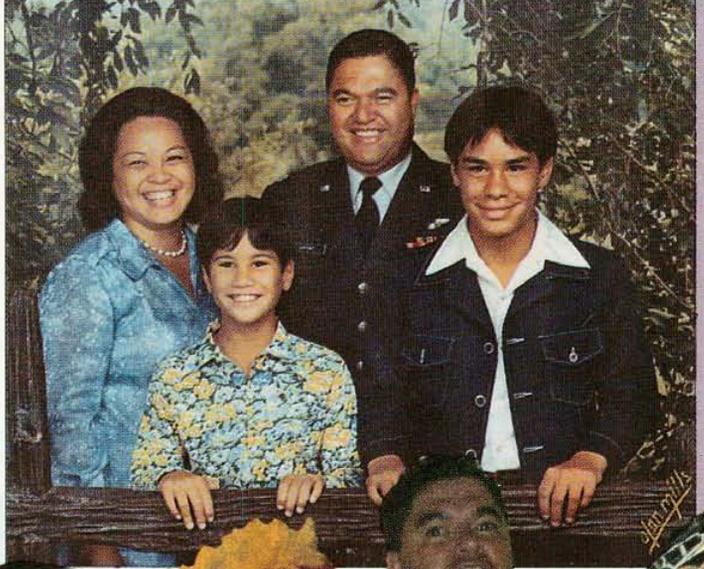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족 규칙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연령, 성숙도 및 책임감의 범위내에서 자유의지를 행사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 준다는 것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자유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으로서나 가족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잠재력을 성취하는 데 필요하다. 이러한 원리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모범으로 보일 때, 우리는 그들이 이 생에서 당면하게 될 어려움에 대비하도록 준비시키고 그들을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선택하는 데 그들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하와이인의 사랑의 상표

조안 졸리

삶의 물결에 휩쓸려 바다의 섬으로부터 북미 또는 남미 어느 곳으로 옮겨 가게 되든지 버트와 아만다 두쌍은 따뜻함과 사랑과 복음을 전파했다.



위 : 비록 그곳에서의 임무는 마쳤지만 홀부족 "버트" 두쌍 대령은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부부가 그곳 지역 대회에 방문하시는 것을 돕기 위해 1975년 보고타로 되돌아 갔다.
가운데 : 1975년 양자인 더글라스, 드와이트와 함께. 그 후에 두쌍 가족은 호놀룰루에 살면서 5명의 수양 자녀를 맞아 들였고 그밖의 아이들도 양육했다.
아래 : 버트와 아만다는 콜롬비아 청년 대회에서 하와이 음악과 춤을 함께 즐겼다.



이름

부록(“버트”) 두풍은 미 공군에서 은퇴한 지 6년이 된다. 그는 아내 아만다와 함께 하와이의 호놀룰루시가 내려다 보이는 안락한 집에서 살고 있다. 두 사람은 다 오아후섬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버트의 전근으로 그들 부부와 두 아들은 여러 번 먼 곳에 가서 살았었다. 그러나 어느 곳으로 가든지 신앙과 유산과 기회가 훌륭하게 혼합되어 친구를 사귀고 “가족”을 찾는 그들의 노력을 축복해 주었다.

우선 분명한 것은 두풍이 말한 대로 조상의 뿌리가 복잡한 것이었다. “나의 계보는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조부는

포르투갈인이었으며 조모는 하와이인이었습니다. 외가쪽으로는 포르투갈인, 하와이인 및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아만다의 조상도 다국적이다. 그녀의 부친은 중국인으로 왕씨였으며 모친은 하와이와 독일계로 이어진다.

그들이 받은 유산 중 중요한 일부는 신앙으로서 주님을 믿는 신앙, 그의 복음과 예언자에 대한 신앙 그리고 각자를 신뢰하는 믿음이다. 버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교회에서 자랐지만 교회 표준에 의하면 개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나가는 했지만 열 두 살이 되어서야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나는 일부만 회원인 가족에 속해 있었습니다.”

버트의 부친은 강인하고, 단호하고, 높이 존경받는 경찰 간부로서 아들들이 침례받는 것을 허락치 않았다. 그러다가 “내가 열 두 살이 되었을 때 강경하게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결국 아버지가 동의하시고 나와 형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곧 집사에 성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년이 못되어 버트는 비종파 신교에서 운영하는 군대 기숙 학교에 등록했다. 그 후 오년 동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고 그는 회상한다.

생활이 바뀌기 시작함

아만다는 버트를 만났을 때 교회 회원이 아니었으며, 몇 년 후 그들이 결혼을 할 때에도 말일성도가 아니었다. 버트는 그가 캘리포니아에서 공군 훈련을 받는 동안 다소 활동적이었으나



두풍 대령은 헬리콥터 부속품을 가득 싣고 콜롬비아 보고타시를 향해 가는 콜롬비아 화물 항공기에 탑승했다. 항공중 기체 내부에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착륙 바퀴 기관을 포함한 모든 수압 장치가 고장났다. 두풍 대령은 콜롬비아 조종사를 도와서 고장난 기체를 비행시키고, 비상 착륙을 시켰다. 비록 승무원들이 착륙 바퀴를 손으로 고정시키기는 했지만, 기수 바퀴는 심하게 망가져서 활주로를 비틀거리며 굴러 갔다. 그의 이러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의 실례와 기타 교문으로서의 봉사로 인해, 두풍 대령은 콜롬비아 공군이 주는 최고의 명예 훈장인 콜롬비아 영웅의 이름을 딴 안토니오 리카우데 훈장을 수여 받았다. 두풍 대령은 미국인으로서의 최초로 그 훈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사가 서서히 움직여” 나갔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결혼직후 “나의 생활은 아내로 인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는 내가 공군 장교로 임관된 후에 결혼했습니다. (이때 아만다는 하와이 대학에서 중등 교육 분야의 학위를 받았다.) 우리는 얼마간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으며 그후 텍사스에서 얼마간의 공군 훈련을 받은 뒤 캔사스로 옮겨 갔습니다. 캔사스로 간 지 이주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아만다가 교회에 대해 알아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임에 참석을 하기는 했지만 교회에 대해 아주 진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버트가 109일 동안 그린랜드로 파견되었으며 당시 그들 부부는 캔사스에서 거처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만다는 버트의 사촌 부부와 함께 기거했다. 친척들은 활동적인 교회 회원이었으며 그들과 스테이크 선교사들은 아만다에게 버트 사촌의 여덟 살짜리 딸이 침례받는 날 침례를 받도록 권고하기 시작했다.

아만다는 그 상황에 대해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내가 언제 준비가 될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짜를 정한 것입니다.”

버트는 이때 아만다가 보낸 편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 일에 대해 약간 기분이 안 좋았죠. 나는 약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내가 속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나는 다른 편지를 받았는데 아내는 이렇게 썼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어서 미안해요. 이번 토요일에 침례받게 됩니다.’”

아만다는 미소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제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만다가 침례를 받고 나자 버트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곧 제사에 성임되었으며 그후 장로로 성임되었고, 두퐁 부부는 곧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그러나 버트는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지만, 교회에 대해 약간의 의문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현대 예언자의 실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버트는 곧 개인적인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예언자로부터 간증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남미 근무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더불어 교회 직책이 주어졌고, 두 아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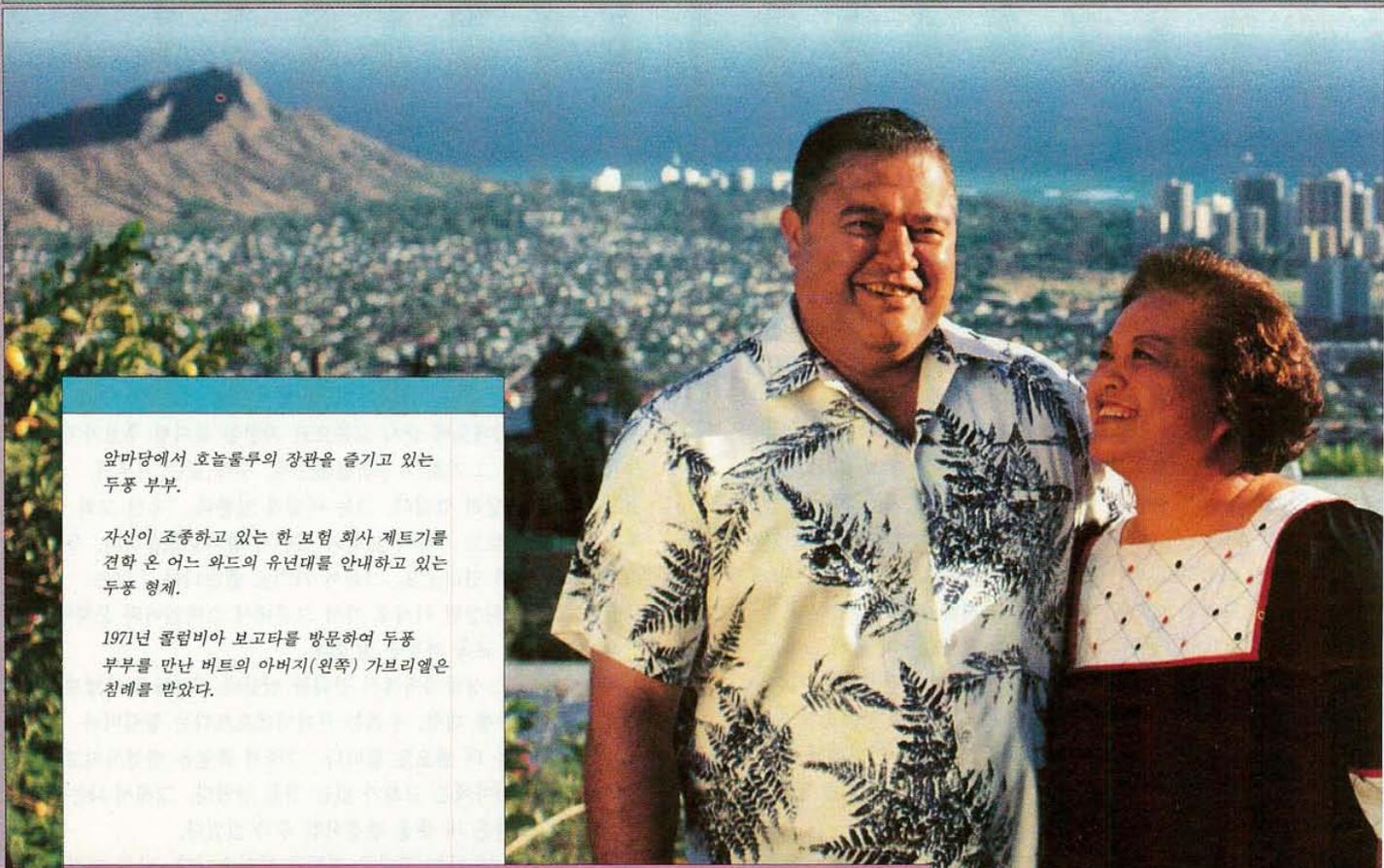
양자로 맞았으며, 직장에서도 승진이 빨랐다. 공군 대령으로서 버트는 성실과 일에 대한 열의와 일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존경받았다. 그러한 명성으로 그는 1970년대초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군사 고문으로 파견될 유력한 후보자가 되었다. 그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었으며, 수락 또는 거부의 결정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선 교회 주소록을 들춰 보고 그곳에 교회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두 개의 스테이크가 있더군요.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만다와 함께 워싱턴 디시로 가서 그곳에서 스페인어와 문화에 관해 6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밟았다.

그런데 버트는 상급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퐁 대령, 우리는 몬테비데오보다는 콜롬비아 보고타에 대령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특명을 변경시키고자 합니다.’ 콜롬비아에는 교회가 없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거절했으며 그들은 내 뜻을 변경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또다른 전화를 받았습니. 나는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과 콜롬비아로 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나에게 전화를 건 상관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가 속한 스테이크에서 칠십인 선임 회장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퐁 형제님, 주님께서 콜롬비아에서 형제님에게 시키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하기는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콜롬비아에 도착한 두퐁 부부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버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곳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 보내졌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지역에 세워졌을 때 개종하여 침례받는 사람들은 은행장이나 대학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뿐이었으며 때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나의 경우는 공군에서의 계급과 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입장이 약간 달랐습니다. 게다가 나는 백인이 아니었으므로 그것 또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사람들에게 무언인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 여기 있습니다.”



앞마당에서 호놀룰루의 장관을 즐기고 있는
두풍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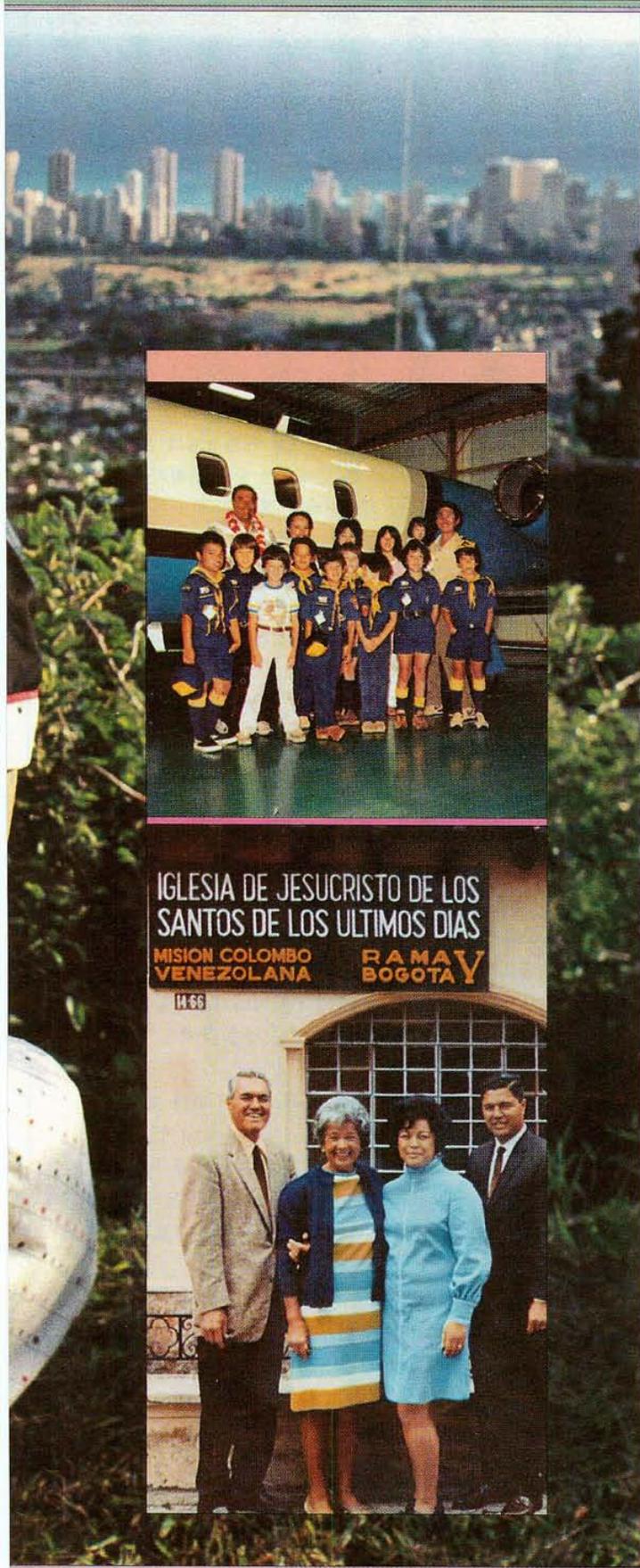
자신이 조종하고 있는 한 보험 회사 제트기를
견학 온 어느 와드의 유년대를 안내하고 있는
두풍 형제.

1971년 콜롬비아 보고타를 방문하여 두풍
부부를 만난 버트의 아버지(왼쪽) 가브리엘은
침례를 받았다.



가브리엘의 왼쪽은 어머니 릴리안, 버트 부부와
함께 있는 장면.

보고타시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병원에
입원중인 소아마비 환자들은 산타 "버트"
클로즈와 그의 군대 동료들로부터 매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두풍 가족이 보고타에 도착한 직후, 버트는 지방부장단 보좌에 부름받았다. 후에 그는 보고타에서 지부장으로 봉사했다. 콜롬비아 여성에 관심이 컸던 아만다는 말을 빨리 배웠으며 상호부조회와 청녀 조직에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했다. 두풍 부부는 복음에 대한 그들의 각오와 기독교인으로서 매일의 봉사 활동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들이 보여 준 훌륭한 봉사는 선교 사업을 활발하게 해주었다. 약 12년 전 아직 발전 단계에 놓여 있던 콜롬비아에서 교회는 강한 간증과 훌륭한 모범이 필요했다. 콜롬비아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귀환한 한 선교사는 두풍 가족에 대해 이렇게 회상한다. “성도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었으며 가정의 밤이 무엇이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었습니다.”

두풍 가정은 장로들과 자매 선교사들이 즐겨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버트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 집에는 미국의 공휴일인 부활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같은 때는 식사 때 무려 60명의 선교사들이 모이곤 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의 첫날부터 두풍 가족의 성공적인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유산의 문제였다. 예를 들어 그 나라에서 있었던 최초의 청소년 대회 참석을 살펴본다. 하와이의 여행을 몇 가지 발표해 달라는 초청을 받고 그들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험한 산길을 열 시간 이상이나 운전을 해갔다.

일단 그곳에 도착하자, 버트는 말씀을 부탁받았다. “지도자와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와이에 있는 듯한 강한 인상을 받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의 친척들과 같았으며 그들의 인디안적 배경은 하와이인이나 폴리네시아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니파이인 가운데서 배를 띄웠던 헤이고드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하와이에 있는 나의 아저씨나 아주머니와 얼마나 닮았는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맺은 관계는 거기에서부터 자라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헤르마노스 이 헤르마나스(스페인어의 형제 자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혈연 관계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라는 이미지는 버트와 아만다가 그들 부모를 보고타로 초청했을 때 더욱 강하게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버트는 이렇게 회상한다. “나의 부친은 훌륭한 분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를 교회에 속하도록 확신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부친은 우리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 가족이 누리는 기쁨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다른 자녀들도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님이 방문해 있는 동안 어느 늦은 밤에 버트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부친에게 다시 가서, 물론 전에 여러 번 거절을 했지만, 침례를 받도록 권유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아내는 영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항상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나의 느낌을 말하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보시는게 좋겠는데요.’ 그래서 나는 부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버트는 그의 부친을 깨웠다. 간증을 하고는 침례에 대한 권고의 말을 전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 “나의 부친은 팔을 벌려 나를 끌어안고는 우셨습니다. 부친은 경찰 간부로서 총에도 맞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우시는 것은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수주 후에 두퐁 형제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영어로 그를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토론을 스페인어로 밖에는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통역을 했습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모든 것이 스페인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요일에는 우리와 함께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친은 분명 무엇인가를 느끼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람들의 영이었다고 믿습니다. 부친이 침례받던 날 사람들은 초만원울 이루었습니다.”

예언자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

1975년 버트와 아만다가 하와이로 귀국할 때까지 살아 계신 예언자에 대한 버트의 간증은 확고하지 않았었다. 버트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잠시 보고타를 방문하는 동안 안전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다. 당시의 경험에 대한 버트의 설명은 살아 계신 예언자의 영향에 대한 감동적인 간증으로 들린다.

“킴볼 대관장께서 나의 손을 잡으셨을 때 나는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내 눈을 쳐다보셨으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간 시간을

함께 했으며 참으로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선교부장 집에서 가정의 밤을 가졌는데 나만 가족이 없는 외톨이였습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팔을 내 어깨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으며 선교부장은 대관장님께 가족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나의 온 생애에는 일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분이 예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개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만다는 의미있는 미소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억한다. 남편이 대관장과 함께 있는 동안 “집에서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저는 자동차 사고를 냈지만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차가 못쓰게 되었지요.”

버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매사를 깨끗하게 잘 정돈해야 하는 그런 사람임을 알아야 해요. 차에 손을 대지 않았을 테지. 지문이 묻을지 모르니까.”

아만다는 두 아들 “두안과 더그가 계속해서 ‘아빠가 집에 와서 차를 보실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요. 버트가 집에 오는 날 그들은 나와 함께 공항에 가는 것도 싫어해서 나 혼자만 나갔지요. 차를 고칠 시간이 없었어요.”하고 말했다.

그러나 사태가 바뀌었다. “버트가 비행기에서 내려 걸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나를 보자 예언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경험이었는가에 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는 완충기의 부서진 부분을 지나쳐 버리고 그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커튼 뒤에서 내다 보고 있었어요. 버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숨어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긴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망가진 완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내게 돌아서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여보, 다치지 않아 다행이구료’ 하고는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야기는 한없이 계속된다. 두퐁 부부는 양자와 불우한 콜럼비아의 친구와 이웃 성도들에게, 재정과 확신에서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에게, 또 누구든 따뜻한 하와이인의 인사를 할 수 있고 아만다의 전문 요리 솜씨를 보려거나 진리와 의로움의 방향으로 나가려는 사람에게 그들의 팔과 가정은 활짝 열려 있다.

아만다는 말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복음은 우리가 어디에 있던 봉사하고 돕도록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어느 개종자의 초상

마르다 포스톤



조 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태어난 마르다 포스톤은 1972년에 미국 평화 봉사단에 가입했다. 평화 봉사단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자들을 훈련시켜 온 세계로 내보낸다. 봉사단에 가입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나의 기술과 지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건강 및 위생, 육아, 음식 및 영양, 재봉 등을 공부한 뒤 마르다는 자마이카의 한 농촌 지역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그곳에 생활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습소를 개설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서아프리카에 있는 리베리아로 전근되었다.

평화 봉사단에서 봉사하는 동안 마르다는 영원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신앙이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기억한다. “나는 자신의 집을 정돈하라고 하는 영적인 속삭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이유는 분명치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봉사를 계속했다. 질병과의 싸움을 돕기 위해, 그녀는 리베리아의 농촌 여성들에게 작은 벌레와 박테리아가 우글거리는 바닥에서 하는 집안 일을 커다란 기름통으로 만든 개수대와 오븐에서 하도록 그 방법을 가르치고 화덕도 흙과 시멘트로 세워 높이도록 가르쳤다. 그녀는 주민들에게 빨래줄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쳤다. 주민들은 땅바닥에 옷을 널어 말렸으며 옷에 기생하거나 알을 낳는 벌레를

죽이기 위해 숯불 다리미를 사용했다. 그 중에도 살아남은 벌레는 번식하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켰다. 그녀는 또한 삶는 방법과 버터를 만들기 위해 야자 열매를 깨뜨리는 법, 곡식을 저장하는 법, 기름통으로 얼음 없는 냉장고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 등도 가르쳤다. 그들은 천으로 된 쌀자루를 물에 적서 얼을 차단시켰으며 여러 날 동안은 보냉 효과를 냈다.

마르다는 자기를 버리고 봉사를 계속하다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따금 낙담할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께 매우 가까이 있음을 기억했다. “나는 그의 영에 의지하여 저를 강하게 인도해 주시게 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후에 물몬경을 읽고 알게 되었던 꿈—생명의 나무로 인도하는 쇠막대의 꿈과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하고 그녀는 말한다. “다른 때 꿈에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편찮게 되어 나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애틀란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경전은 계속해서 탐구했습니다.”

마르다가 어머니의 집에 머무는 동안 두 명의 선교사가 찾아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왔습니다.”하고 그들이 말했다. 첫번째 토론이 끝난 뒤 마르다는 이 또다른 지식에 감사를 느꼈지만 이 “참된 교회”에

속할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세번째 토론을 할 때 그녀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여 줄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이 교회로 인도되고 있음을 강하게 느꼈다.

1983년 5월 1일에 마르다 포스톤은 침례를 받았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한다. “내 영혼은 굶주렸으며 내 마음과 영은 목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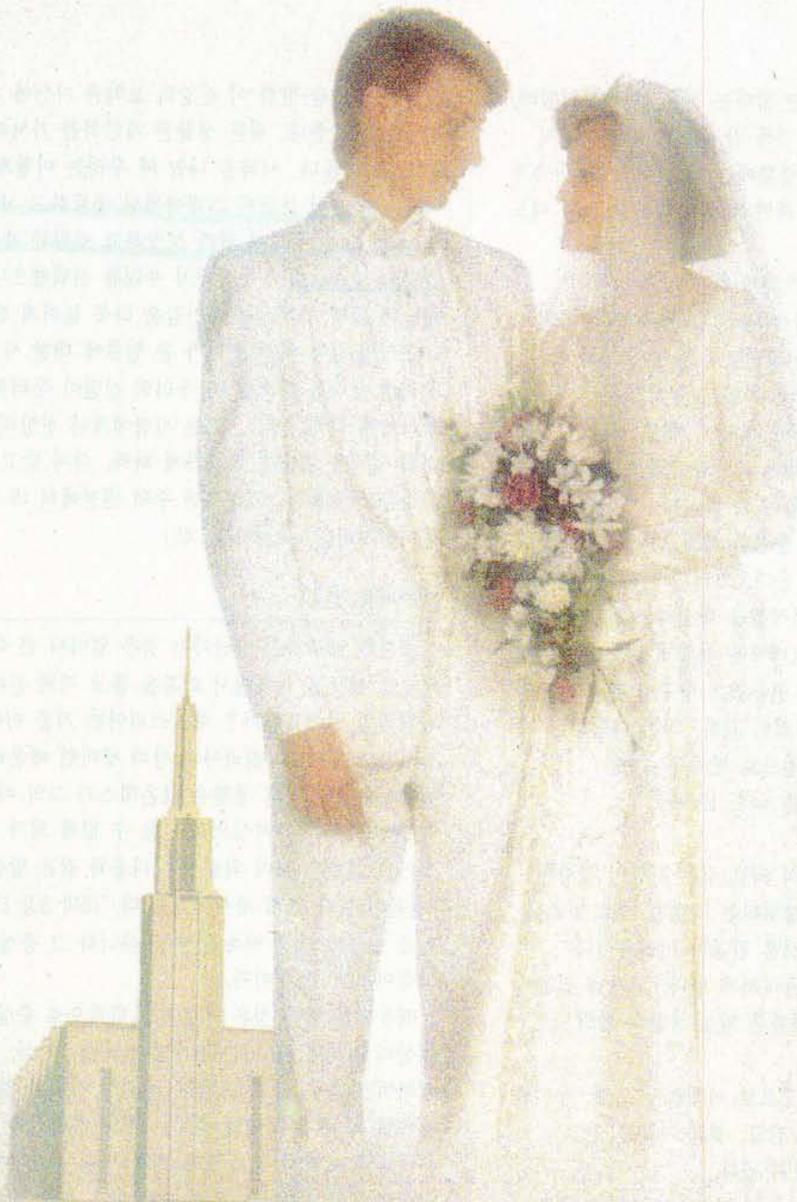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년 뒤 마르다는 애틀랜타 성전에서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르받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기쁨을 누리며 이렇게 간증한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찾아 기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또 마음을 열고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결혼 생활에 믿음이 있습니까?

크리스티 에이치 프렌슨



“결혼 생활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인가?”하고 나는 성찬식에 참석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와드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자문해 보았다. 신혼 부부가 있는가 하면 서로 훌륭하게 적응되어 얼굴 모습이나 말하는 것까지 닮아 보이는 노부부도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부가 나나 나의 남편과 비슷하다. 그들은 여러 연령층의 자녀, 집세, 직장 및 교회 부름 외에도 인생의 과제가 겹쳐져 있다.

모든 사람이 성전 결혼을 하지만 하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가
존경받을 만하고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배우자의 신뢰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배우자에게 더 큰 신뢰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결혼 생활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이 훌륭한 성취로 가득 찬 부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생활에는 기복이 있다. 만족과 개인적인 성장을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좌절과 침체를 느낄 때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결혼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답을 해주는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하다. 매주 하루 저녁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배우자를 항상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고, 자녀와 기타의 책임으로부터 이따금씩 자유로운 시간을 가진다거나,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않으며, 매일 저녁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합당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 남편이나 아내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등이다.

사랑, 비이기심, 끊임없는 애정, 솔직한 대화, 의로움—이 모든 것들이 결혼 생활에서 차이를 가져 온다. 그러나 나는 결혼 생활에서의 성공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됨을 확신하고 있다.

말일성도 상담자인 칼프레드 브로테릭은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인생에서 보람있는 경험은 믿음있는 영구한 관계에서 찾게 된다. 안전과 안정, 성실과 내적인 평화, 다른 사람의 결심에 대한 확신—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만족을 주는 것들이다.”(부부, 뉴욕: 사이몬과 슈스터, 1979년, 158~59페이지)

행복한 결혼 생활에 믿음이 핵심이 되는 것은 신앙이 간증의 핵심인 것과 같은 것이다. 관계가 성립되는 기초는 바로 믿음에 있다. 믿음이 강하고 굳건하다면, 결혼 관계는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지 않고, 성숙하게 되고 운택하게 된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꾸준하지 못하다면, 결혼 생활은 일상 생활의 압박으로 시련받게 된다.

결혼 생활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참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배우자처럼 자신을 믿고, 배우자를 믿고, 결혼 자체를 믿고 주님을 믿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처럼 자신을 믿음

배우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철학자 소렌 키엘케골은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신앙의 도약”에 대해 말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언약을 할 때 비슷한 “도약”을 한다.

결혼 생활을 향한 이 신앙의 도약은 자신에 대한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한다. 결혼 생활은 개인적인 가치와 잠재적인 성장을 함께 말해 준다. 서약을 나눌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보듯이 그대에게서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봅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영원한 축복을 공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선택했으며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부심과 자신감을 더욱 높게 된다.

교리와 성약 역시 우리가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덕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때 우리의 신임이 두터워지리라고 우리에게 말해 준다. “모든 사람에게나 신앙의 권속에게 향한 너희 사랑을 가슴에 가득하게 하라. 쉬지 말고 덕으로써 내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내 신임이 두터워지리니”(교서 121:45)

배우자를 믿음

충실한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부부가 서로의 행동을 계속해서 의혹을 품고 지켜 본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겠는가? 셰익스피어는 겨울 이야기에서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다. 시칠리아의 왕과 왕비인 레온테스와 헤르미오네의 결혼 생활은 레온테스가 그의 아내를 그처럼 훌륭하고 우아한 여성으로 믿을 수 없게 되자 파탄되고 말았다. 그가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믿음이 눈을 뜨게 하셔야 합니다.”(5막 3장 11줄) 결혼 성약은 상호 충성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 충성을 서로 믿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이다.

배우자를 믿는 것은 서로가 도덕적으로 충실함을 확신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성실, 지식, 능력 및 잠재력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야 한다. 사실상 사소한 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일상 생활의 의무는 결국 충성심에 대한 믿음의 부족만큼 크게 결혼 생활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매일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충고하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믿음을 세울 바탕이 없어질 때까지 사랑을 약화시킬 수 있다.

내 경우 많은 경험을 통해 부부는 믿음의 유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배우자를 믿게 되면 매사를 결정함에 동의할 필요 없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노력과 선한 의도를 굳게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이견이 생길 때 선의와 사랑의 분위기에서의 대화와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 용서와 관용은 기본적인 믿음의 중요한 표현이 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판단에 간혹 실수가 있더라도 믿음은 언제나 깊고 사랑과 이해가 커가며 결혼 관계는 굳건해 진다. 우리가 서로에게 투자한 믿음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게 한다.

결혼 생활 자체를 믿음

결혼은 과정이며, 결혼식은 그것을 시작하는 행사일 뿐이다.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 평생 투쟁하는 과정이다. 참으로 그것은 때로 우리의 결속을 강화하고 마음을 하나로 엮어 주는 투쟁 자체이기도 하다.

소녀 시절에 겪은 한 경험은 투쟁이 어떻게 우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지를 내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새를 길렀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조그만 새 새끼들이 깨고 나올 동지에 있는 알들을 몇 시간이고 지켜 보았다.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우리는 조그만 새를 보고 마음이 몹시 안되었다. 그것은 몹시 길고 힘들어 보였다. (우리는 어린 새가 알 속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 48~72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우리는 새끼새의 힘이 그 일을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도와 주기로 했다. 알을 깨기 시작할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껍질 조각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떼어 내어 쉽게 빠져 나올 수 있게 해 주었다. 첫 새끼가 껍질 속에서 빠져 나왔을 때 우리는 감격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새끼들은 한결같이 발이 모두 불구였으며 머리를 넘기지 못하고 제대로 서거나 먹이를 먹기 위해 걷지도 못한 채 죽고 말았다.

우리는 친절할 마음으로 도와 주었던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슬픔과 죄의식을 느꼈다. 어린 새들이 껍질을 깨는 데 쏟는 시간과 노력은 그들이 발과 다리와 목에 힘을 주고 발달시켜 알에서 나왔을 때 균형을 유지할 준비를 하게 해 주는 것이다. 새가 쉽게 빠져 나오도록 해준 것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말았던 것이다.

결혼 생활도 이와 같은 것이다. 과제를 풀어 나가고, 어려움에 당면하고, 함께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되는 길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결혼이 단합시키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문제와 갈등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는 분리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가깝게 결속시킬 수 있다.

주님을 믿음

우리는 누구나 베냐민 왕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육으로 난 인간”의 성품을 내부에 지니고 있다.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한 유혹에 빠질수록 우리는 더욱 “육욕에 빠져 악독하며 악마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모사이야서 16:3)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에게 그의 영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고 죄로부터 깨끗케 되며 그에게서 영생의 권세를 받을 기회를 준다. 그의 속죄가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게 되며 속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 우리는 속죄를 알게 되고 구세주에 대한 신앙이 증가될 때 회개의 깨끗케 하는 효력과 성신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느낌이 커질 것이다.

모사이야서 4장에서 베냐민 왕은 우리가 구세주의 속죄의 능력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서로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게 된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 공평하게 대할 것이다. 우리는 가족의 필요 사항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녀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기를 가르”칠 것이라고 했다. (11~15절 참조) 믿을 수 있고 사랑스러운 결혼 관계를 위해 이보다 더 나은 기초를 가질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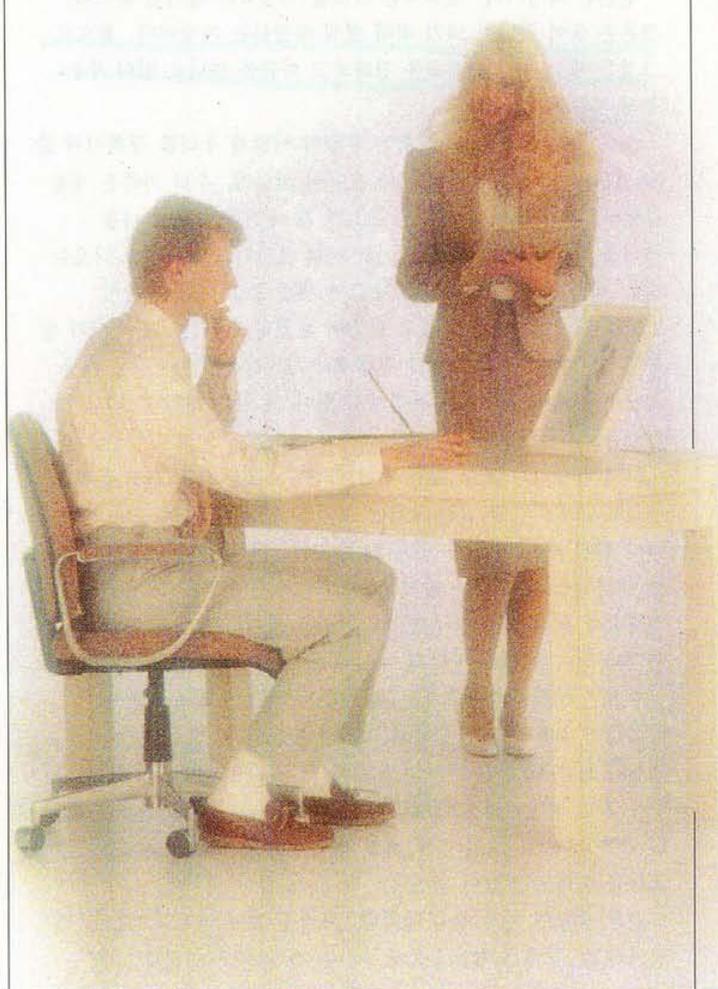
나의 언니는 이러한 개념을 잘 나타내 주는 모범이 되고 있다. 그녀는 열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감당키 어려운 일이 된다. 더욱이 남편은 교회와 직장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어 매일같이 집에서 떠나 있어 자녀를 돌보는 일은 거의 아내에게 맡기고 있다. 남편이 직장을 바꾸게 되고 그에 따라 번번이 이사를 하며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모든 불행의 닢을 남편에게 돌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니는 늘 유쾌하고 낙천적이었다. 나는 한번도 자신을 한탄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언니에게 물어 보았다. 오래 전에

언니는 자신의 행복은 자신의 책임이지 다른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구세주에 대한 지속적인 간증으로부터 온다고 했다. 주님을 믿는 언니의 신앙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거기에서 행복을 얻게 해 준다.

신뢰를 키움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신뢰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겠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배우자의 능력과 판단력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의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배우자에 대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감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키울 수 있겠는가?

엘마는 이렇게 말했다. “신앙이란 사물을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보라 너희가 깨어나... 아주 작은 신앙을 실제로 품어 보려 할진대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믿겠다는 의욕이 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엘마서 32:21~27 참조)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에게서, 배우자에게서 그리고 구세주에게서 신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준다. 우리는 신뢰하기를 소망함으로써 시작하게 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언행으로써, 즉 서로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 보이고, 결정에 대해 배우자의 권고를 구하거나 따르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며 서로의 활동과 관심을 지지해 줌으로써 이러한 소망을 더욱 자라게 한다. 멀지 않아 우리가 뿌린 신뢰의 씨앗은 자라 무성하게 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의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된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나의 결혼 생활에서 그것을 시도해 보았다.

신뢰하기를 소망하는 것에는 신뢰를 얻으려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가 존경받을 만하고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를 신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자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

구세주의 속죄를 믿음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할 줄 알게 되었으며, 남편과 우리의 결혼 생활을 신뢰함으로써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결혼 생활이 힘들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흔한 반면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며, 결혼 생활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부부, 모든 사람이 성취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량한 남녀들은 기꺼이 대가를 치루고자 한다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결혼과 이혼,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6년, 16페이지)

크리스티 에이치 프랜슨은 라 크레센타 캘리포니아 스테이크의 라 카나다 제1와드 회원이다.



Derek Smith

위기의 때

에이 라 바르 소나크

우리가 이 생에서 슬픔과 부당한 일과 불행을 겪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행의 상황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신다.

수 없이 많은 위기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라디오를 통해 듣고 텔레비전에서 보며 친구와 이웃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된다.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쉽게 보인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 때는 그것을 해결하는 일이 훨씬 어렵게 된다.

나는 스스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권고를 요청할 때 몇 가지 특별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나 고통을 덜어 주거나 시련을 물리쳐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이 생의 행복

시련을 견디어 내기 위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 첫번째 개념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세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세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리하이는 여러 해 동안 광야와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은 뒤 그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준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낳게 하려 함이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니파이서서 2:25)

많은 어려움을 겪은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로움, 성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0페이지)

우리가 이 생에서 슬픔과 부당한 일과 불행을 겪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행의 상황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복음이 내세에서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줄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시험받아야 함

우리가 이해해야 할 두번째 개념은 시련과 시험이 구원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승영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애굽의 요셉, 모세, 욥, 요셉 스미스, 또한 구세주께서도 몸소 시련당하고 시험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시험받아야 한다. 영적인 힘과 성장은 반대되는 것을 극복할 때 온다.(니파이서서 2:11~29 참조) 그것은 울슨 에프 휘트니가 말한 바와 같다.

“우리가 겪는 어떤 아픔이나 우리가 체험하는 어떤 시련도 헛된 것은 없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쳐 주고 인내, 신앙, 불굴, 겸손 등과 같은 자질을 키우는 선생 역할을 한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모든 것은, 특별히 참을성있게 견디어낼 때 우리의 인격을 도야하고 마음을 청결케 하며 영혼을 넓혀 주고 우리가 더욱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에 더욱 합당하게 해 준다. ...우리가 이 지상에 온 것은 슬픔과 고난과 시련과 노고를 통해 교훈을 얻기 위함임을 깨닫고 그로 인해 더욱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임을 알기 위해서이다.”(스펜서 더블류 킴볼 인용, 기적을 낳는 신앙,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2년, 98페이지)

얼마 전 강연 여행을 하는 중 나는 연사 중 한 사람이 삼일간 계속해서 역경에 관한 나의 강연을 듣고 있는 것을 알았다. 세번째 강연이 끝난 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생애에서 참으로 시련이나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당해 본 일이 없어요. 그 일을 생각하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 올 때 어떻게 그에 대처하느냐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제어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우리가 시련을 자청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 몫으로 된 시련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고전 10:13 참조)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도록 준비해야 하며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신앙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 훌륭한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빨리 그렇게 큰 시험을 받게 될지 거의 모르고 있었다. 불과 수개월 후에 그녀는 남편과 함께 외아들의 시선이 들어 있는 조그만 관 곁에 서 있어야 했다. 그녀의 친구들이 예기치 않은 농장에서의 사고로 죽은 어린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 때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준 사람은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녀와 남편은 슬펐지만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비통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주님의 영으로부터 생겨난 조용한 힘을 나타내 보였다.



질병은

무고한 자와 죄인을 모두 괴롭힌다.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이 생길 수도 있다.
음주 운전자로 인해 부상당할 수도 있고,
범죄자에 의해 희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위기를 효율적으로 넘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세번째 개념은 이 여인의 경험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강하고 확실한 간증을 갖는다면, 우리의 위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넘길 수 있게 된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매리온 디 행스 장로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환란과 시련, 이별과 슬픔, 절망과 어려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앙과 이해와 용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영 안에서 참으로 번성할 수 있다.”(영감의 메시지,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레트 출판사, 1957년, 319페이지)

복음의 반석 위에 간증을 세울 때, 우리는 위기가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준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원인 규명

우리가 이해해야 할 네번째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대한 참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이유로 불필요하게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겪는 모든 문제가 죄를 범한 결과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에 가득 차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므로 환란을 효율적으로 이겨 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대부분의 위기는 다음 다섯 종류에 속한다. ① 자연적인 재해, ② 질병과 고통, ③ 다른 사람의 잘못, ④ 자신의 죄와 사악함, 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시험이나 시련. 우리는 항상 위기의 원인을 구분 또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이유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용기를 준다.

사고가 발생하고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위기에 당면하게 된다. 모든, 또는 많은 지진, 홍수, 태풍, 폭풍 또는 기타의 자연 재해가 피해자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질병 또한 모든 사람을 괴롭힌다. 모든 병이 자연 재해처럼 하나님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큰 잘못이다. 질병에 따라서는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멸의 육신이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겪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들게 되는 것이다.

때로 우리의 비극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우리는 음주 운전자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으며, 힘이 강한 자에게 능욕을 당할 수도 있다. 구세주께서는 무죄한 자가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가르치셨으나(마태복음 18:6~7 참조) 악으로 갚지 말라고 가르치셨다.(마태복음 5:38~44) 그대신 우리는 야곱의 아들 요셉과 같아야 한다.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갔지만 그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다. 그는 그의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계속 전진해 나아갔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 그는 그에게 가해진 모든 해들이 주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또한 비통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원래 가해진 해보다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을 것이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 고통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 자신의 잘못과 죄 때문일 때도 있다. 우리가 겪는 비극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자신을 다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 합리화, 자기 정당화 및 반항은 당분간 우리에게 해방감과 성공했다는 느낌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치료가 될 수는 없다. 치료는 용서를 구하며,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때에만 가능하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마지막 개념은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도움이란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심각한 위기를 넘길 수

우리가 이 생에서
슬픔과 부당한 일과 불행을 겪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불행의
상황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신다.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의지한다면 그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결국 이것이 경전에 담겨 있는 기본 주제의 하나이다.

나는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것은 1952년 1월 한국 동란 때였다. 우리 부대는 여러 시간 동안 총격을 가했다. 드디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우리는 참호 안에 누워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곧 잠이 들었다.

그 다음 내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한 우편 배달부가 감독으로부터 온 편지를 내 손에 쥐어 주는 것이었다. 나의 부친은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배에는 암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도 그가 일주일 이상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감독은 귀국할 준비를 다 해 놓았으니 적십자에 연락하라고 적었다.

나는 편지를 들고 적십자 대표에게로 갔으며 그는 아버지의 상태가 위독한지를 확인하려 했다. 확인이 되었을 때는 이미 부친은 세상을 떠났다. 나는 부친이 별세했으므로 귀국시킬 이유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본대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또 한바탕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화가 나고 분개했으며 마음이 몹시 상해 있었다. 실망한 채, 나는 작은 숲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나는 주님께 그 좋지 않은 감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간구했다. 곧 나는 가슴속에서 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평안함을 느꼈다. 그것은 곧 전신에 퍼졌으며 나는 곧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때의 경험은 20여년이 지난 후 내가 아내와 함께 우리 마을 병원 응급 처치실 밖에 서 있을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우리는 열 여섯 살 된 딸이 여러 명의 의사로부터 장시간

치료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교통 사고로 증상을 입었다. 와드의 감독 부부, 스테이크 부장 부부가 그곳에 와 있었다.

한 의사가 엑스레이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딸 아이의 척추가 손상을 입어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와 나는 부둥켜 안고 울었다. “안돼요, 안돼. 이럴 수가…” 곁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울었다.

나중에 집으로 가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딸에게 어떻게 알릴까 하고 생각했다. 우리는 또한 차라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딸 아이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나을뿐했다고 생각했다. 몇 시간 뒤에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딸 아이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 몸을 구부리면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딸은 눈을 뜨고 팔을 뻗쳐 들며 말했다. “아빠, 울지 마세요. 보세요, 전 팔이 있잖아요. 또 마음과 정신이 있잖아요. 또 달려 가야 할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경건과 복음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필요한 도움과 지혜를 준다. 우리에게는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축복해 주는 지도자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신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해 죽음을 겪게 하시고 그로 인해 다시 그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요한복음 3:14~17 참조)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을 수 있다.

에이 라 바르 소나크는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분교의 종교 분과 위원장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적 : 자매들이 우정 증진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도움

구 세주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그의 사도들과 식사를 하셨다. 식사가 끝난 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한복음 21 : 15)

구세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셨다.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때마다 구세주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 (15~17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 깊이 새겨져야 한다. 베드로가 알게 된 바와 같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은 우리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무요 거룩한 사명이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바바라 비 윈더 자매는 어머니를 잃은 친구를 둔 어느 자매에 관해 말했다. 슬픔에 빠진 친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그 자매는 주님께 간구했다. 주님으로부터의 응답은 “그냥 가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방문은 친구에게 위로가 되었으며 그들은 함께 기도했다. 슬픔에 찬 자매는 후에 참으로 친구가 가져다 준 것-필요한 화평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대회 보고, 1984년 10월)

우리는 모두 힘든 짐을 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진 가족 또는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며, 질병, 불구 또는 재정적인 불안 등의 문제로 고심하는 사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나 자녀가 없이 인생의 아무런 의미와 목적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우리는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라는 명을 받았다. (모사이야서 18 : 8) 참으로 남의 짐을 덜어 주는 것은

때로 우리 자신의 등에 지워진 짐을 더는 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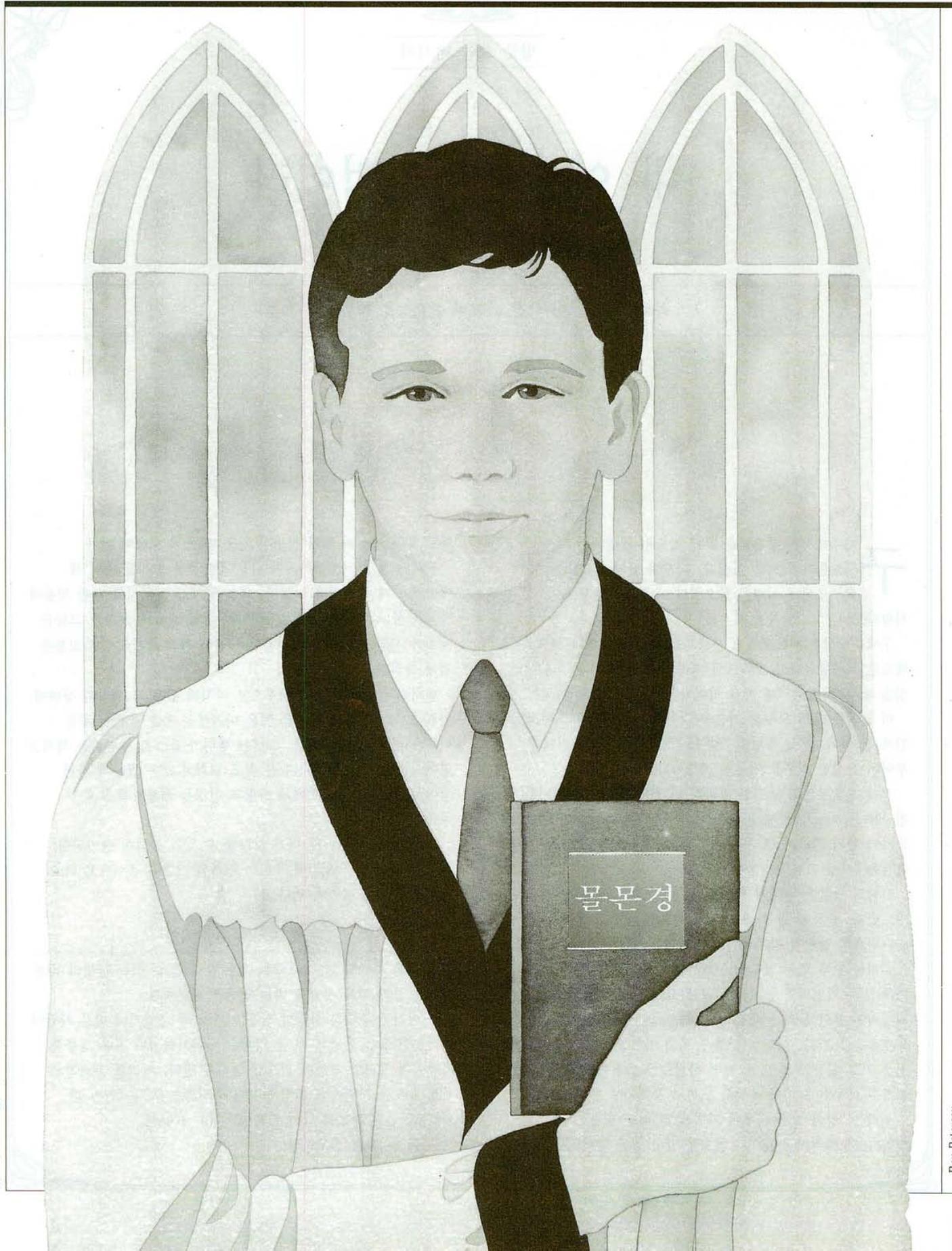
웬디와 제임스는 첫아가기가 다운 증후군의 병세를 지닌 채 태어났을 때 절망감을 느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믿음에 의심을 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한 그들은 교회와 사회 활동으로부터 멀어져 결국 결혼 생활에서도 고통을 겪게 되었다.

웬디의 삶은 마가렛이 이웃으로 이사해 왔을 때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 몇 년 전에 자녀를 잃은 마가렛은 차츰 슬픔에 젖은 이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웬디가 스스로 절망감을 헤치고 일어서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찾고 교회의 모든 활동에 다시 참여하며, 남편과 아이에게 사랑과 인정을 베풀도록 도와 주었다.

우리는 사랑을 줄 때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되며, 주님의 “양”을 “먹일” 때 우리는 평화와 기쁨의 음식으로 더욱 풍성한 잔치를 즐기게 된다.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더욱 잘 살필 수 있는 방법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시간을 내는 방법을 토론한다.
2.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 주었거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 준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방문한 자매에게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말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가정의 밤 자료집, 관련 자료를 알기 위해 98~101, 106~8, 112~16페이지를 참조한다.)



나는 성직자가 될 것이다

로빈 케이 백스

“물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나는 스스로 물어 보았다.
여러 종교를 탐구해 보았지만 이것만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고 등학생 시절 나는 소수의 감리교도 청중 앞에 자신만만하게 서서 “인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킴”이란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모임이 끝난 뒤 교회 회원들은 내게 장차 성직자가 되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날 집에서 나는 상쾌한 가을 날씨를 즐기며 평화롭게 거닐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무래도 목사가 되어야겠어.”

청중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또한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어려서부터 갖기 시작한 종교에 대한 나의 관심은 심판날에 대한 예상으로 느낀 공포 때문에 강박관념이 되어 버렸다. 교지에다 나는 목회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고등학교 1학년말에 나는 직업으로 성직자가 될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대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신학반을 수강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나는 공부와 운동을 잘했으며 학교 축구 팀에서 활약했다. 학교 밴드에서도 활동했으며, 학생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내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일기에 적혀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그 이야기를 말해 준다.

고3—다른 기독교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는 동안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기까지 긴 시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성서 대학을 찾아가 4년 후에는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냈다. 2년 뒤에는 내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다른 대학에서 장학생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서 대학에 가리라 마음먹었다. 강의는 재미있어 보였지만 무언가 일반 대학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빠져 있는 것을 느꼈다. 내 인생에서도 무언가가 비어 있는 듯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졸업을 앞두고—종교는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확신이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죄의식마저 느꼈다. 잘못을 저지르면 당황하게 된다. 이따금씩 술과 담배를 했다. 첫잔을 입에 댄 뒤 고등학교 친구들은 나의 종교적인 면 보다는 축구 선수로서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더 염려했다.

계획의 변경—나는 집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던지 시티 대학에서 축구 선수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장학금은 학비를 대는 데 도움이 되었다. 목사가 되려 했을 때 반기로 되어 있던 장학금은 포기했다. 그러한 계획은 미루어도 될 것이다.

여름—나는 던지 시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일하고 있으며 지역 야구 팀에서 활동한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경기를 위해 야구팀과 여행을 하고 집에 새벽 2시에 들어와 7시에 다시 일하러 나간다.

잘못된 것—이번 여름은 예년과 달랐다. 교회에 많이 나가지 않았다. 많이 읽고 많이 썼다. 그러나 종교는 무언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다. 나 자신도 무언가 비어 있는 것 같다.

성경—나는 아직도 성서 대학교의 방침을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교회를 빨리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언젠가 주일학교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전파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 논쟁을 벌였는데 그는 성직자는 더욱 현대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현대적인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혼란을 가져 왔다. 즉 내가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복음 토론은

마치 장막을 걷어내는 것 같았다.
그 복음에는 내가 여러 해 동안
믿어 온 많은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의미와 현대에서의 그 위치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학생활의 시작-아직도 가끔은 기도를 한다. 몇 번은 이렇게 기도 드렸다.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보여 주십시오.”

학기말-대학에서의 첫 학기가 끝나고 나는 우수 학생의 영예를 얻었다. 지난밤 나는 내가 공부하는 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나는 혼자 웃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 모든 일을 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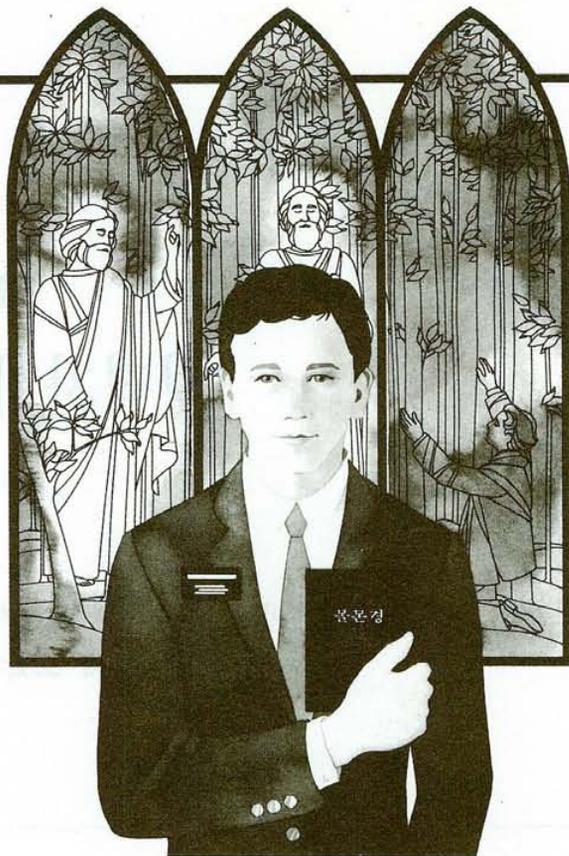
몰몬 여학생-며칠 전 자넷이라는 몰몬 여학생을 만났다. “몰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하고 나는 스스로 물어 보았다. 여러 종교를 탐구해 보았지만 이것만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몰몬경-나는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냈다. 어머니에게 몰몬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여쭙었다. 책장에 소책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그것을 찾아 주셨다. 오래된 것으로 겉표지가 딱딱한 책이었다. 나는 지금 그 몰몬경을 읽는 중이다. 어머니는 그것을 몰몬 성경이라고 했다.

데이트를 마치고-자넷은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며 데이트하는 최초의 여성이다. 오늘 저녁 데이트를 하고 우리는 종교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녀에게 성직자가 되려는 나의 확고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모든 교회마다 뭔가 잘못이 있어요.”

그녀는 자신있게 말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래요? 얘기 좀 해 주세요?” 하고 내가 말했다. 그녀는



특정한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 최초의 여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순수하게 빛나며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몰몬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녀는 선교사와 만날 것을 제의했다. 언젠가 그러겠노라고 했다.

다음 월요일-오늘 저녁에는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나는 매일 저녁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은 센터에 들어서자 브래룩씨가 오늘 저녁에는 내가 필요치 않다고 했다. 공부할 마음도 없고 해서 자넷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전화를 걸었더니 집으로 오라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온다고 했다. 이 모임은 내가 전화를 걸기 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다른 월요일 같으면 나는 어김없이 일해야 했다.

모임-자넷의 집에서 선교사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흰 수염에 검은 모자를 쓴 두 노인이 문을 두드리리라 생각했다. 나는 선교사들이 내 나이 또래임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서 배운 것은 영적인 것이었다.

접견-오늘 저녁 침례 접견을 했다. 나는 침례를 승인한다는 부모 승락서를 아버지로부터 받아 왔다. 아버지는 몇몇 말일성도들을 아신다. 아버지는 내가 교회에 속하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지역 책임자에게 나는 토론은 마치 장막을 걷어 내는 것 같았으며 전에 들었던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그 복음에는 실존하고 만질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것과 같은, 여러 해 동안 내가 믿어 온 많은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토론을 빠른 속도로 마쳤으며

회원들의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놀라운 일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약속된 침례일이 되기까지 오히려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4월 27일-오늘 저녁 침례를 받았다. 내가 전에 여러 지부 회원들의 침례식에 참석했던 것처럼 나의 가족이 참석했다. 이제까지의 생애동안 느껴보지 못한 가장 깨끗한 느낌이다. 이곳 회원들의 따뜻하고 친절함 태도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놀라운 일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듣는 자들이 없음-나는 적어도 열 명 이상의 친구가 분명히 교회에 들어오리라 생각했다. 그들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친구들 대부분이 나의 높은 표준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바울이 이야기한 바와 같았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갈라디아서 4:16)

성찬식-가족이 오늘 성찬식에 참석했다. 모임이 끝난 뒤 나는 선교사와 함께 선교사 공부를 위해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갔다. 첫째 토론이 끝난 뒤 존슨 장로가 다시 와서 나의 가족을 가르치고 싶다는 약속을 하려 했다.

“지금 계속하면 어때요?”하고 어머니가 물었다.

그래서 두번째 토론을 했다. 그때 아버지는 농장일을 위해 나가야 했다. 어머니는 빨리 식사 준비를 했으며 한 시간쯤 후에 아버지가 식사하러 오셨다. 식사가 끝난 뒤 세번째 토론을 했다. 하루 저녁에 세 개의 토론을 한 것이다.

7월 27일-오늘 저녁 나는 가족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것은

내가 교회에 속한 지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우리 가족은 결국 하나가 되었다. 내가 어머니를 물에서 들어 올렸을 때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선교사 부름-나는 마음이 들떠 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 보니 대관장단으로부터 편지가 와 있었다. 뜯어 보고 캘리포니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기뻐서 울었다. 주님 보시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느끼며 이렇게 여쭙었다. “제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은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컸다.

가장 중요한 것-대학에서의 2년간은 아주 순조로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서 대학에 다니기 위해 6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가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계획은 바뀌었으며 집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리를 찾은 것이다. 이제 수주일 후면 주님을 위해 선교사로 봉사하게 된다. 나는 성직자가 될 것이다.

성전 인봉-나는 오늘 성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께 영원히 인봉되었다.

성전 결혼-자넷과 나는 오늘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나는 복음대로 완벽하게 생활하여 다른 여성들과는 눈에 띄게 다른 점들을 보여 주어 나를 복음 가운데로 인도해 준 여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나의 동생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격려했다. 복음은 그 일을 해 낼 것이다.*

모형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물문경을 통해서 주어진 진리를 읽거나 들을 때,
그 진리를 우리 생활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도록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부친의 대장간에서 일을 하는 동안, 나는 모형으로 사용해야 할 세 개의 구멍이 뚫린 조그만 강철 막대기를 받았었습니다. 나는 여러 개의 철근에 조심해서 세 개의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정확하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부친은 내가 하는 일을 살펴보며 구멍을 측정했습니다. 그는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야, 이 구멍들은 완전하게 정확하지가 않다. 어떻게 뚫었는지 한 번 보여다오.” 나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철근을 집어 그 위에다 내가 이미 구멍을 뚫어 놓은 다른 것을 양쪽 끝을 정확하게 맞추어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부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문제가 거기 있었구나. 넌 언제나 내가 준 모형에 따라 구멍을 뚫어야 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아버지에게서 받은 원래의 모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형을 사용할 때마다 구멍은 조금씩 틀리게 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준, 사랑으로 준비된 원래의 모형, 시간을 초월한 모형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구세주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문경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실려 있나니...나의 말이라”(교성 19 : 26~27) 주님께서는 물문경의 세 목격자에게 직접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주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같이 그 번역은 참되다.”(교성 17 : 6) 이 원래의 모형은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로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만유인력과 같은 물리적인 법칙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계에서 법칙의 작용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게 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바뀌게 됩니다. 영적인 법칙 또한 변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 진리를 이해하는 범주에 따라 생을 살아갑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물문경이나 기타 다른 근원으로부터 진리를 읽거나 들을 때, 그것은 그 진리로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을 소망하는 거점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엘마서 32장에 설명된 바와 같이 약속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일부가 된 그것이 참된 원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의 모형에 따라 생활을 하도록 삶을 변화시켰다면,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서 말해 주는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축복을 거두는 것입니다.(교성 130 : 20~21 참조) 인간은 자신의 행동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모형과 그 영원한 율법, 그리고 그에 따르는 축복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영원한 진리에 따르게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은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먹지 않거나 수면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할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결과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물문경을 읽을 때마다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며, 그 배운 것은 그것을 읽는 그 순간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도록 권고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이유, 즉 배우야 한다는 이유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배우며 극복하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그분의 성약인 물문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리오에서의 토요일 특별 활동

테리 켄크스

무더운 열대성 기후 지방인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의 토요일 아침에 차가운 비가 내린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청소년들의 사기를 꺾지는 못했다. 비가 퍼붓는 속에서도 그들은 각 와드에서 모여 들었다. “이 달에는 누가 이길까?”하는 것이 리오데자네이로 스테이크 토요일 특별 활동이 열리는 니테리오에 오는 모든 학생들이 품고 있는 의문이었다. 와드 간에 일년 동안 계속되는 경쟁은 막상 막하의 게임을 벌이는 팀들로 이제 그 절반쯤 이른 것이었다.

쌀쌀한 날씨는 활동이 시작되면서 기대와 들뜬 분위기로 어우러졌다. 모두가 각 팀에 자리를 잡고 앉자 세미나리 관리자인 라미로 마르틴스가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을 환영했다. 눈을 깜박거리며 그는 경쟁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브라질산 초콜렛이 들어 있는 상자를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런 다음 진지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하고 주님께 헌신하도록 격려했다. “청소년은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하고 말하면서 그는 검은 눈에 올리브 색의 얼굴빛인 청소년들을 쳐다보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대한 목적을 갖고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의롭게 살겠다는 더욱 굳은 결의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나서 대결이 시작되었다.

1988년에 세미나리 교재로 사용하는 경전은 구약이기 때문에 각 와드에서는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중 하나의 이름을 딴 팀이 출전했다. 각 지파처럼 청소년들은 승리팀이 되기 위해 각 개인의 재능을 하나로 모았다. 유다 지파는 폰세카 와드였으며 요셉은 니테리오 와드, 알칸타라 와드는 므낫세 지파였다. 그리고 베르멜호 와드는 에브라임 지파, 사옹 곤잘로 와드는 레위 지파, 프리브르호 와드는 베냐민 지파로 이름을 붙였다. 점수는 게임에 이긴 점수, 참여자가 경전을 가지고 온 숫자, 비회원 친구가 참석한 숫자와 회원의 출석수에 의해 주어진다.

그날의 첫번째 활동은 “전함” 놀이로서 오버헤드 프로젝터가 상황판 역할을 한다. 화면에는 열 척의 배가 있으며 정답을 맞히면 배는 “침몰”한다. 성구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으로 각 팀은 차례로 배를 찾는다. 활동은 팀간에 서로 배를 찾아 침몰시키는 경주가 되었다. 결국 유다 지파에서 합심하여 가장

많은 배를 침몰시켜 승자가 되었다.

다음 활동은 구약전서 성구 찾기에서 학생들의 신속함과 정확성을 시험하는 성구찾기였다. 개인 또는 단체전으로 진행되었으며 비회원 친구들도 그들의 경전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 순서도 있었다. 이 게임에서는 요셉 지파가 개인 및 단체전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훌륭한 실력을 입증했다. 세미나리반에서 연습하고 헌신한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세르지오 테일세이라 시모네스는 승리팀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말한다. “세미나리에 참석하면 경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개인전에서 당당하게 승리한 파트리시아 리베이로 아민은 성공의 비결을 정규적인 세미나리 참석과 가족과 함께 성구 찾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니테리오 와드의 세미나리 교사인 이클레아 쿠토 메그레는 이렇게 말한다. “월례 토요일 특별 활동에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합니다. 매달 청소년들에게는 경쟁이 필요한 새로운 목표가 주어지며 목표가 달성되면 연말 결산의 총점을 위한 점수가 주어집니다.” 5월 활동에서 청소년은 가족 역사 기록 사용 방법에 대해 배웠다. 각 팀에는 다음 활동을 할 때 성전 사업을 위한 백 사람의 명단을 갖고 오라는 목표가 주어졌다.

세미나리 활동은 브라질에 있는 청소년들의
간증을 키워주고 강화시켜 준다.

유다 지파는 그 목표를 두 배로 달성하여 200명의 명단을 갖고 왔으며 그것으로 1등이 되기에 충분한 점수를 받아 트로피를 받아 가게 했다.

리오데자네이로에는 4퍼센트만이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이 있다. 토요일 특별 활동에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것은 비회원 친구와 함께 참석한 팀에게 주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만한 일이다. 폰세카 와드의 크리스틴 카르로소는 친구들을 활동에 데려오는 일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하고 그녀는 말한다. 갈색의 곱슬머리가 예쁜 눈과 환한 미소에 잘 어울렸다.

세르지오의 학교 친구들은 그에게 종교가 무엇이나고 가끔 묻는다. 이것은 그의 표준이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고 나의 신앙에 대해 말해 줍니다.”하고 세르지오는 그의 확고한 간증을 나타내는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그들을 일요일과 활동 모임에 초대하지요. 어떤 친구는 오고 어떤 친구는 오지 않습니다.” 이년 반 전에 침례를

받은 이후, 그는 선교사들이 그의 친구를 가르치고 침례를 주는 일을 도와 주었다.

청남 청년 조직에서 준비한 맛있는 점심을 먹은 뒤에 청소년은 오후가 되면 운동을 하거나 저녁에는 무용을 한다. 배구나 농구를 하기도 하지만, 브라질에서 인기있는 운동은 축구이다. 경진 활동에서 사용했던 팀웍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때 득점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모든 활동이 끝나면 청소년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때로는 근육이 아프기도 하지만 새로워진 정신과 다음달 토요일 특별 활동에 대한 기대를 갖고 돌아간다.

“청소년들이 단합하도록 돕고 그들과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청소년 활동의 주된 목적입니다.”하고 라미로는 말했다. 브라질 축제 동안, 그것을 대신해서 갖는 연례 청소년 대회는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이다. 나홀만의 브라질 축제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연회로서 그 분위기는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교회의 청소년들은 축제 활동이 없는 가까운 농장이나 인근 마을로 가서 청소년 대회를 한다. 나홀간의 활동은 운동, 게임, 무용 및 영적인 모임 등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 대회는 축제를 대신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하고 카를로스 에누아르도파스는 말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오락 활동을 위해 청소년들은 복음에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스포츠 행사에 참여한다. 가정의 밤이나 일요일 모임은 그룹을 단합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어떤 사람들은
대회가 끝날 때 갖는 간증 모임이 활동 중
가장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몇몇 비회원 친구들까지도 이
대회에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하고
이클레야는 말했다.



교회 활동을 통해서 리오데자네이로의 청소년들은 비회원
가족이다. 친구로부터 받는 압박을 견디어 내는 데 도움이 되는
신앙을 쌓고 강화한다. 제르지오 마르보사는 이렇게 말한다.
“간증이 강할 때는 해야 할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청소년들이 더 나은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디운 열대의 리오데자네이로의 한낮의 태양처럼 강하고
열렬한 간증을 가진 정담 정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부음에
대한 그들의 강한 간증 때문인 것이다.*



빛의 원

마릴린 브라운

성 찬 전달이 끝난 뒤, 동생 로버트는 연필과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로버트가 걱정되었다. 열여섯 살 된 제사로서 이제는 이런 일을 그만둘 때가 되었으니 말이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랬듯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교회에서의 그의 행동을 무시했다. 언젠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림을 그리더라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 있는 것이 낫다.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어머니와 나는 로버트가 추운 슬리핑 백에서 잠을 깨는 산에서 자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에 두고 왔더라면 그는 그가 사랑하는 개인 주노와 함께 등산을 갔을 것이다. “나는 고리탐험한 모임에서보다는 산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요.”하고 아버지께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에 가는 가족이 아니냐? 너는 그 가족의 한 사람이고, 네가 집에 있는 동안은 우리와 함께 교회에 가야지.”하고 아버지가 부드럽게 타일렀다.

나는 로버트의 손을 바라보았다. 나무를 베고 자르고 끈을 매고 고랑을 파는 일로 거칠어져 있는 손이었다. 손톱은 제대로 다듬지도 않았으며 더러웠다. 그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산사람 같았다.

나는 언젠가는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그곳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했다. 그는 물문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주일학교 시간에는 농담이나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성찬식에서 하는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로버트는 계속 그림을 그렸으며 나는 나도 모르게 그곳을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자매에게 집중하려 애썼다. 그녀는 최근에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대부분 우리 브라이언이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어떠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애가 혼자 행동하길 원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는 교회에 오기보다는 개를 데리고 산에 오르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몸을 바로 세우며 눈을 크게 떴다. 나는 로버트가 그림 그리는 장난을 집어치우고 말씀을 듣기를 바랬다.

그 자매님은 말씀을 계속했다. “그는 가끔 며칠씩 집을 나가곤 했어요. 개를 데리고 산에 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집에서 그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사하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릴 뿐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로버트가 그 말을 듣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 자매님의 말대로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손길이 멈춰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가 그 어머니의 말씀을 잘못 듣고 개와 함께 며칠씩 집을 나가는 일이 없기를 빌 뿐이었다.

그 어머니는 말했다. “브라이언은 자기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로버트를 쳐다봤다. 그는 계속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잘하는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그 아들이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선교사로 갔다 왔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하는 등의 말씀이었다.

로버트는 나머지 얘기는 전에 모두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귀환한 선교사가 말씀을 할 차례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되거나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교회에 가지 않고 며칠씩 산에 가서

나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인간을 염려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이 책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때로 부모님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셨습니다. 부모님께 많은 염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로버트는 그 선교사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나 때가 되어 친구들이 선교사로 가기 시작하자 저도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는 물론경을 읽어본 일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한 친구가 내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너도 선교사로 나가야 해. 하지만 아무도 널 강요하지는 않아.
시도해 봐. 물론경을 읽고 그래도 가고 싶지 않으면, 적어도 넌
시도는 해 본거니까.’

“그 시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와드 회원들이 웃었다. 로버트도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다, 한 이주 가랑 개를 데리고 사막같은 곳에 가서 물론경을
읽어 보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 친구가 나와 개를 도로에서
100킬로미터쯤 떨어진 한적한 사막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음식과 생존 장비만 남겨 두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는 약 2주 후에 같은 장소에 와서 우리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로버트가 학교에서 시험이 끝나면 그렇게 2주 동안
사막으로 나가는 일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물론경을 갖고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틀 만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인간을 염려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이 책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문명으로부터 1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친구가 나를 데리러 오려면 열 이틀이나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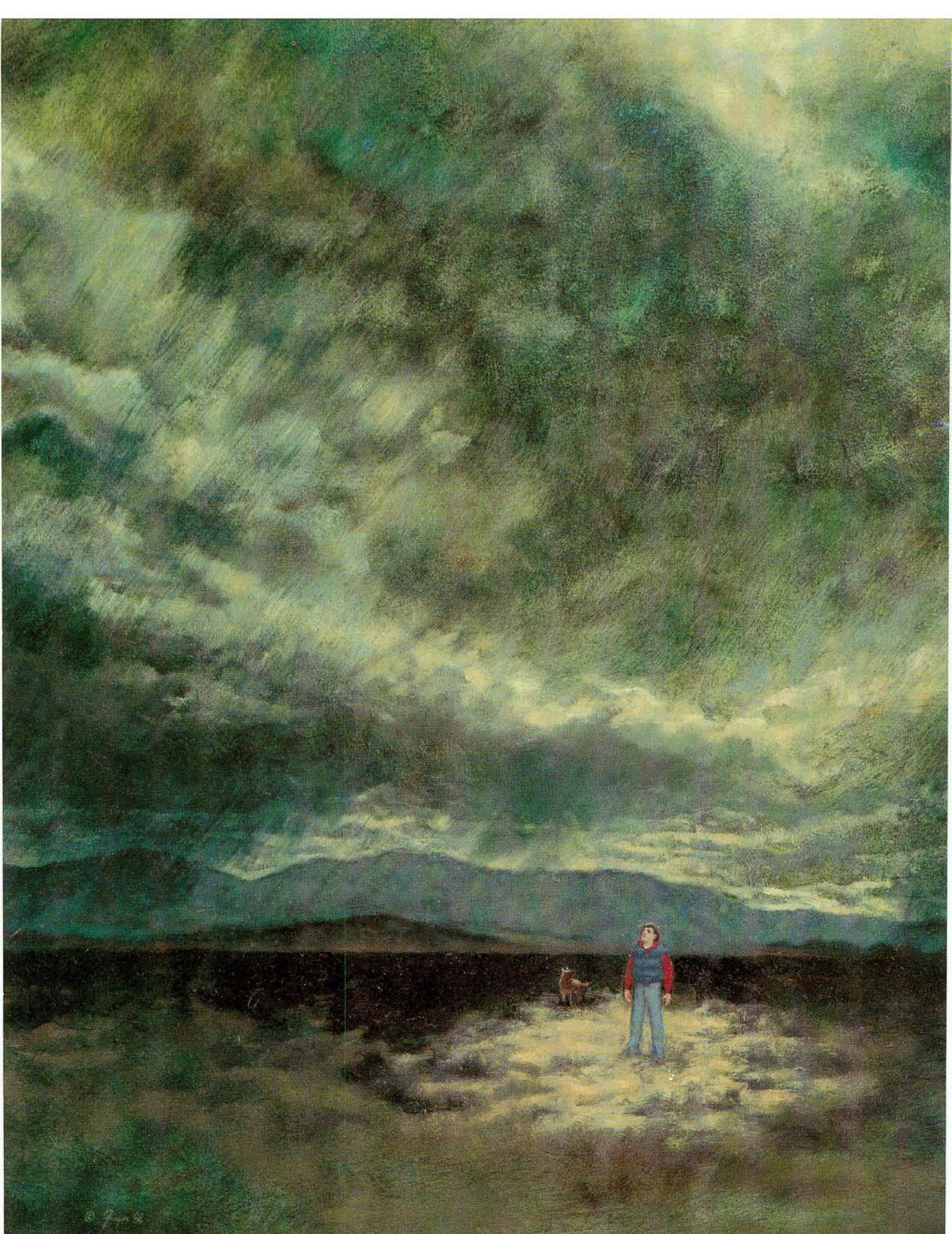
있어야 했습니다.

“바위에 걸터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이상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걸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야 할 방향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무모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부분의 식량과 야영
장비를 나중에 실어 가기로 하고 남겨 둔 채 떠난다면 한 이틀쯤
후에는 도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나는 재킷에 사과 몇 개와 칼 그리고 성냥만 넣고는 캠프를
떠났습니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정오 무렵에는 30킬로미터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퍼부어
주위가 온통 가려져 방향을 알려 주는 표시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개와 나는 순식간에 흠뻑 젖었으며 오후가 되면서
우리는 추위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두려운 느낌에
사로잡혀 코트를 꼭 여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체온저하에 대해 여러 번 들었습니다. 빨리 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는 2월이었고 저녁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내린 비는 곧 얼어 붙을 것입니다. 몸을 말려야 했지만
야영 장비가 있는 곳까지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순간 바위 사이에 은신할 만한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으로 기어들어 갔습니다. 겨우 내 몸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개는 젖은 채 추위에 떨며 밖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폭풍이 지나기를 바라며 여러 시간을
보낸 듯 했습니다. 그 비속에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혈액 순환을 위해 움직여야 했으나 그 출고
비가 쏟아지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

록 나는
회색 방막처럼 나를 둘러싸고
내리는 비를 맞으며 흠뻑 젖었지만,
긴조함을 느꼈습니다.
한줄기 부드럽고 안락한 빛이
내 머리 위로 비추어지면서
몸이 마른 듯한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대화를 했습니다. 나는 내린 비가 얼어 붙기 전에 개와 내가 몸을 말리지 못하거나 이 폭풍이 여러 날 계속된다면 음식물을 얻지 못하고, 불을 피우지 못하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제 물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며 선교사로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고 나와 똑같은 확신을 얻도록 권고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잠시 기도를 멈추고 조용히 들어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비를 멈추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만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그때처럼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을 빠져나와 걷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일을 해 주시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그곳에서 빠져나와 걸어야 했습니다.

“그 바위에서 빠져나온 순간에 나는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개와 함께 빗속을 100여미터쯤 걸었습니다. 바위에서 평지로 나와 걸었습니다. 구두, 옷, 성냥 모든 것이 다 젖어 있었고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힘을 주실 것을 기도하며 걸을 때 나는 내 위에 부드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비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멈추어 서서 푸른 언덕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는 내가 걷고 있었던 지역에만 그쳐 있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커다란 원 밖에는 아직도 시커멓게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은 나의 주위로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나는 따뜻함을 느꼈고 몸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광야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조용했다. 나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와 함께 비내리는 그 푸른 언덕에 있는 것 같았다. 로버트도 그랬다.

나는 나 자신의 호흡 소리와 심장이 고동치는 것을 듣고 느꼈다. 그림이 그려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로버트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으며 어머니는 팔을 그에게 얹었다. 성찬식에 앉아 있는 것이 마치 빛의 원 가운데 있는 것 같았다.*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9~11)